

2011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9

# 100세 투자사회 대비 가족정책 과제 연구

장혜경 · 김영란 · 최인희

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 100세 투자사회 대비 가족정책 과제 연구

---

연구책임자 : 장 혜 경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영 란 (본원 연구위원)

최 인 희 (본원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발 간 사

한국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11.0%이며, 2018년에는 14.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9년 현재 65세인 남자는 앞으로 17.0년, 여자는 21.5년을 더 살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현상에 따라 가족규모의 축소 및 세대구성 단순화 등 가족내 변화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역동성과 경제적 활력이 넘치고 세대간 공생발전하는 ‘100세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인생 100세 시대를 위한 정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원에서는 100세 사회 전반적인 가족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가족이슈의 조명을 통한 가족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100세 시대 가족정책 관련 연구의 시발점입니다. 특히 100세 시대 논의가 노령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회구성원에게 100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족생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어 그 의미는 매우 큼니다. 이 연구를 중심으로 향후 지속적인 100세 시대 여성가족 이슈 및 정책과제가 준비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자문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00세 시대 가족연구의 초석을 놓아준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최 금 숙

## I. 연구개요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사회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외국과 달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도 가장 낮은 수준임. 이러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규모 축소 및 세대구성 단순화 등 가족 내 많은 변화를 동반하고 있음. 100세 시대 가구형태로 부부+자녀 가구, 부부노인가구, 그리고 노인1인가구들이 다수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존의 100세 시대 논의들을 종합해 본 결과 직접적인 여성·가족의 문제는 가족의 像과 역할, 고령자에 대한 부양부담의 이슈가 주목되었음.
- 여성·가족이슈는 노령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회구성원에게 100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기 삶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라는 관점에서 더욱 100세 시대 대비 기본적인 정책이슈로서 강조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세부정책 방향 하에 100세 시대 가족환경변화와 가족이슈들을 살펴보고 여성·가족이슈로 부각된 가족역할과 고령자 부양부담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우선적 정책과제로 가족생활재설계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역할과 노년기 가족돌봄지원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함.

### □ 연구의 주요 내용

-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가족이슈 조명
  - 100세 시대 정의 및 가족논의의 의미
  -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시사점
  - 100세 시대 가족이슈 조명
  - 100세 시대 대비 여성가족부 정책 현황
-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과제 (1) : 가족생활재설계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역할

- 연구배경
- 가족생활의 현주소 및 관련정책 현황
- 주요 정책아젠더 발굴
-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과제 (2) : 노년기 가족돌봄지원
  - 연구배경
  - 노년기 가족돌봄 현주소 및 관련정책 현황
  - 정책아젠더 발굴

#### ☐ 연구방법

- 문헌 및 관련자료 분석
- 관련 통계자료 점검 및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부처와의 협의

#### ☐ 연구의의

- 100세 시대 도래에 대해 개인, 가족, 사회, 국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족 정책 기초자료의 역할
- 새로운 가족정책대상 집단의 출현(노인가족, 노인1인가구, 신노령층 등)에 따른 가족정책 패러다임 논의 근거자료 역할
- 젊은 시절부터 미래에 대한 준비와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수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의 근거

## **II.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가족이슈 조명**

#### ☐ 100세 시대의 정의와 가족논의의 의미

- ‘100세 시대’는 건강하고 적극적인 노화를 통한 ‘인생이모작’의 달성이 가능하며, 필요한 사회로 정의할 수 있음. 100세 시대는 사회참여와 가족생활을 둘러싼 생애주기의 길이를 변화시킴으로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임으로 가족논의는 100세 시대 사회적·정책적

준비의 기초자료가 될수 있음

#### □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시사점

- 평균수명의 연장과 가족생활주기의 장기화로 노인부부가족 증가
  -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최빈 사망연령이 상승하여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가능함
  - 이에 노인부부 가구의 증가가 부각될 것임. 지속적인 출산을 감소는 자녀의 가치가 정서적 의미가 커지고 성인자녀 및 노부모의 동거 및 부양의식도 약화되고 있음. 무엇보다도 가족생활 주기의 장기화 현상이 지속될 것 이라는데 있음. 가족생활 주기의 장기화 현상은 자녀가 떠난 빈둥우리 시기로 부부만 생활하게 되면서 이들의 생활기간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가족의 활동 비중이 커지는 시기가 됨.
- 세대구성에 따른 부양가치관의 약화로 사회 부양부담 증가
  - 노인부양에 대한 규범적 구속력 약화와 노인들의 자녀동거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고 있음.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 노인부부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 증가를 살펴볼 때, 그들 자신의 부양이나 안정적인 정서적인 지원을 자녀 세대에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부양 문제를 초래하게 됨.
  - 한편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길어진 인생주기는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 생존하게 되는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임.
- 혼인규범 구속력의 약화로 다중결혼 혹은 노인1인 가구 증가
  - 세대간의 동거가 축소되고 결혼의 영속성도 약화되면서 노인가족의 개인화 경향이 심화될 것임. 이는 인생 후반기의 적극적인 가족설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에 걸맞는 활기찬 노년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 현재 노인가족의 취약한 경제상황이 고려되어야함을 시사함
- 이러한 논의들은 100세 시대의 도래가 사회의 구조 전반에 커다란 변혁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변혁의 기초가 되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가족변화 현상과 추이 진단을 통한 시사점은 가족주기의 재개념화, 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가족이슈, 노년층의 변화와 이들에 특성에 맞는 노인세대 가족이슈를 부각시킴.

## □ 100세 시대 가족이슈 조명

### ① 가족주기의 재개념화와 관련한 가족이슈

#### ○ 생애주기 및 가족주기의 새로운 개념화

- 평균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100세 시대에 적합한 생애주기의 구분이 필요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의미 및 가치부여가 필요함. 또한 가족주기에 대한 개념과 시기 구분 역시 저출산, 만혼화 경향이 적실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화를 통해 중장년세대부터 노인세대들까지 보다 장기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주체자로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노령기 뿐 아니라 다양한 생애단계에서의 가족형성, 확대, 해체 등이 반영되는 사회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임. 이에 가족법과 정책상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하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이혼, 상속제도의 재검토 이슈가 부각될 것임.

#### ○ 퇴직 이후 삶에 대한 이해 및 준비의 조기화

- 특히 남성들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내며 일 중심적인 생활을 해옴. 퇴직은 이러한 기존의 생활방식을 전면적으로 뒤엎고, 직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일이 아닌 여가나 ‘그냥 쉼’이 대부분인 일상을 살아가게 함. 최근, 퇴직자들의 충격과 심리적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퇴직준비프로그램들이 기업이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제공될 필요가 있음.

#### ○ 노년기의 재정립

- 현재의 노년기, 노인 개념에 따를 때 노년기는 40년 이상의 가장 긴 하나의 인생주기에 해당됨. 40년 이상에 해당되는 인생의 다채로운 삶을 새롭게 규정하고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② 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가족이슈

#### ○ 남성노인의 가족생활 적응 필요

- 노년기를 보내는 방식에 있어 남성노인들을 고려해야 함. 여성노인들은 아이가 들어도 손자녀를 돌보거나 가사일을 돕는 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남성노인의 경우는 가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가족 내에서 그 존재의 의미는 매우 미약할 것임.

○ 노년기 부부관계 주목

- 과거 노년기 부부관계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황혼이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노년기 부부관계, 노년기 부부간의 갈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지금까지 부부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개입과 프로그램들은 신흥기 부부, 중년기 부부에게만 초점을 두어 왔으며, 노년기 부부와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적 관심은 미미하였음. 100세 시대에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그 양상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루기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임.

○ 100세 생애차원에서 돌봄노동의 가치 및 가족관련 법제도 검토

- 돌봄노동에 대한 여성노인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유급노동에 기인하여 각종 연금제도에 의해 기초적인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인남성에 비해 여성노인의 경우 독자적 수급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전생애에 걸쳐 여성이 수행해온 부불노동의 다양한 양상들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것이 갖는 사회적, 시장적 가치의 재평가를 통해 이들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노년기 돌봄 문제 부각

- 100세 시대는 길어진 인간수명과 함께 이들의 장기간 지속되는 질병 등 건강문제가 부각됨. 100세 이상 고령자들 중 74.0%가 현재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으며, 그 중 치매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치매가 당사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고통을 부가해 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정책준비가 필요할 것임.

### ③ 노년층의 변화와 이들에 특성에 맞는 노인세대 가족이슈

○ 노년층의 다양성 주목 필요

- 평균 수명은 늘고 퇴직은 빨라짐에 따라 노년기 자체가 상당히 확장됨. 30년에서 4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는 노인 집단은 이제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년층의 다양성이 주목될 필요가 있음. 사회계층별 차이, 젠더, 결혼유무, 가족 및 사회적 관계등 다양한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적 조명이 필요할 것임



#### □ 100세 시대 대비 여성가족부 정책현황

- 여성가족부 2011년 업무계획과 “제2차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중심으로 파악해본 결과, 기추진중인 사업가운데 100세 시대 가족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 있음. 전반적으로 가족의 가치 증진과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강조하였으며, 아동·청소년·여성 중심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음. 향후 구체적으로 노인가족 및 노인가구증가라는 가족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적 준비가 필요함.

#### □ 합의

- 앞서 논의된 100세 시대 가족이슈들은 정책적 고려의 근간을 제공해 줄 것임. 기 추진중이거나 기획중인 정책은 이러한 가족환경변화와 조응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세부방향 재설정이 필요할 것임. 그리고 중장기적 로드맵 하에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의 설정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예산확충, 연구추진, 인프라구축 등이 준비되어야할 것임.
-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여성가족부가 범 정부차원의 ‘100세 투자사회 프로젝트’의 검토과제로서 설정한 “100세 시대, 가족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은 가족주기와 맞물리면서 우선적으로 가족생활재설계와 노년기 돌봄 이슈가 핵심으로 부각될 것임.

### III.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 과제(1):

#### 가족생활재설계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역할

#### □ 배경

- 100세 시대 가족변화의 특징의 첫번째는 가족주기발달단계 중 성인자녀와의 동일세대 동거기간이 길어지고, 자녀 독립이후 노년부부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임.
- 두번째 특징으로는 가족주기에 따른 연령범주가 다양화되고 있어 가족주기별 평균연령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임.
- 세 번째 특징은 노동시장 은퇴 이후 가족생활시간이 장기화된다는 것임

- 한국기업의 평균정년은 55세이나 조기정년 등으로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임. 2009년 평균기대여명이 남자 77세, 여자 83.8세임을 고려하면 남성은 은퇴후 약 24년, 여성은 은퇴후 약 30년을 가족과 지역사회안에서 생활하게 됨.

#### □ 가족생활의 현주소

-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자녀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주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특히 만혼이 보편화되고 결혼적령기 개념이 사라지면서 첫아이 출산 연령의 스펙트럼이 과거에 비해 매우 넓어지고 있음. 또한 청년취업문제 등으로 인한 자녀의 경제적 독립도 늦추어지고 있음.
- 일하는 남성이장은 절대적으로 가족을 위한 시간 사용량이 적으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 적고, 자녀와의 대화도 부족하며, 자녀와의 관계만 족도도 낮은 현실에 있음. 이러한 남성의 가족생활에 대한 낮은 참여는 성 역할 고정관념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여전히 일 중심적인 노동문화와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가족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함.
- 남성의 가족생활에 대한 소극적인 참여와 자녀양육자 역할의 부족함은 중장년기에 이어서 은퇴이후에도 지속되어 은퇴남편증후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즉 가사와 자녀양육을 함께 하지 않고 일만 해왔던 남성의 경우 은퇴 이후 가족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은퇴증후군을 경험함.

#### □ 관련 정책 현황

- 100세 시대 가족생활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은 주로 가족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음.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친화 사회·직장환경 조성 사업과 공공민간부문의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사업, 좋은 부모 및 가족가치 확산 관련 사업 등이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가족지원사업도 이에 해당됨.

## □ 주요 정책 아젠더

### ○ 가족생활 재설계 지원 프로그램

- 100세 시대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기 부부기간이 길어짐. 하지만 일반인들은 대체로 90대까지의 생애설계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애 재설계, 가족생활 재설계 및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만혼과 출산연기 등으로 가족주기 발달단계에 있어서 연령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연령고정관념이 없어짐. 이에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부모상담 등 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연령중립적이거나 다양한 연령별로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 남성의 가족귀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노년기 장기화로 은퇴 이후 가족생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남성들이 갈등없이 가족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과거 자녀 양육기에 아버지 역할과 더불어 은퇴남성대상 교육등 아버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함.

### ○ 남성은퇴자의 지역사회참여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 노년기의 장기화로 인해 은퇴 후 가족생활기간이 길어짐.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등 생애주요과업에서 벗어난 노년기에 무기력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노년기 부부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 ○ 부부관계의 안정성 및 정서적 친밀감 유지를 위한 개인 사회적 전략 필요

- 부부간 역할 공유를 위한 부부역할 재모형 수립: 2인 생계부양자 시대 적극적인 돌봄 공유 부부로의 역할 변화 및 남성들의 돌봄 가치 재발견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지역 및 사회 환경의 조성
- 건강한 노인부부의 행동 매뉴얼 제정 및 참여기회 확대
- 노년기 부부관계 관련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 등 관심증대 필요

### ○ 길어진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부모자녀관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부모역할 정립

-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최근 신규노동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점차 만혼화,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함.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연장은 결과적으로 자녀세대에 대한 부모의 의존성을 더욱

-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부모자녀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과제가 요망됨.
- 지역사회내 가족역할 재정립 및 가족가치 확산
  - 노년기의 장기화로 인해 은퇴 후 가족생활기간이 길어짐.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등 생애주요과업에서 벗어난 노년기에 무기력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노년기 부부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 IV.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 과제(2): 노년기 가족돌봄 지원

##### □ 배경

- 현재 노년기 가족의 형태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부부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이며, 가족지원망의 축소는 노년기 돌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또한,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후 돌봄의 주 제공자로서 배우자의 비중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의 주돌봄자 중 배우자의 비중이 37%로 나타난 장혜경과 동료들(2006)의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함.
- 이와 함께 노후 돌봄에 대한 가치관에도 변화가 나타나 60세 이상 노인 중 상당수가 향후 자녀와 동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노후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조부모가 그들의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인구사회학적 구조의 변화, 노후 돌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100세 시대 대비 가족을 돌보는 노인 및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노년기 가족돌봄 현주소

-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돌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부족함.
-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노인이 돌봄의 대상이었으며, 이에 ‘노인’ 돌보

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노인에 의한’ 가족 돌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노인이 가족을 돌보는 주돌봄자가 될 경우 돌봄자 자신의 고령화로 인한 신체·기능상 제한 등으로 인해 부양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노년기 가족돌봄자가 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부양부담은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이 있으며 노인의 돌봄자원(예: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부양부담이 달라짐.
- 노인에 의한 배우자 돌봄의 경우 여성노인이 주돌봄자인 경우가 많으나 남성노인이 부인을 돌보는 경우도 적지 않음. 따라서, 남성노인의 돌봄 상황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도 필요함(김혜경, 2007).
- 노인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도 확대되어야 함.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으며 대부분의 독거노인이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고, 빈곤, 소외, 우울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밝힌 기존 연구결과들(석재은, 2007; 최영, 2008)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함.

#### ☐ 관련 정책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돌봄자 및 노인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주요 정책 및 제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서비스 - 기본, 종합’, ‘노노케어’ 등이 있음.
- 전술한 가족돌봄자 지원정책은 가족돌봄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의 돌봄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지원대상을 엄격한 기준(예: 소득수준, 노인의 기능상태 등)에 의해 선정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이에, 증가하는 노인돌봄자와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주요 정책 아젠더

-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실시 필요
  -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 실시가 필요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우자,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주요 어려움, 정책지원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들의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비공식 가족돌봄자(informal family caregiver)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가족돌봄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  
 상이 극히 일부이므로 보편적으로 가족돌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가족을 돌보는 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① 노인 수발자 휴식제도(respite care service) 제도화

- 휴식제도는 가족수발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  
 으로, 적절한 일시휴식제도는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돌봄일  
 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돌봄자를 위한 휴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으나 형식적이며 내용이 단편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시  
 행중인 휴식서비스 내용을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②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 기존 가족돌봄자 지원 정책은 주로 부모를 돌보는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노인이 배우자를 돌보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  
 한 새로운 정책 개발이 필요함.
- 특히, 남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보는 수도 적지 않으므로 성인지적 시각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돌봄기술(예: 가사일하기, 간병하기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③ 지역사회 노인돌봄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돌봄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노인의 aging-in-  
 place를 돕고,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돌봄 프로그램은 신체·기능적 또는 심리·정서적으  
 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예: 가사활동 지원,  
 활동보조, 말벗서비스 등)를 제공할 경우 ① 노인의 가구형태(예: 노인부부  
 가구, 노인 1인가구 등)에 관계없이 노인의 돌봄욕구를 일정수준 채워줄  
 수 있고, 동시에 ② 노인의 가족 및 돌봄자의 부양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  
 을 것임.

- ④ 노년기 “자가관리/자기부양(self-care)” 개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노년기에 다른 가족을 돌보면서 자신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자가관리/자기부양(self-care)”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주돌봄자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self-care 방법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고 있음. 특히, 만성질환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발된 Powerful Tools for Caregivers는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 가족돌봄자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예방적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self-care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⑤ 중장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충
-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돌봄 이전 부부관계의 친밀성의 정도와 유형이 노년기 배우자 돌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장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충도 필요함.

# 목 차

I.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5
3. 연구의의 및 성격 .....	6
가. 연구의의 .....	6
나. 연구의 성격 .....	6
II.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가족이슈 조명 .....	9
1. 100세 시대의 정의 및 가족논의의 의미 .....	11
2.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시사점 .....	12
가. 평균수명의 연장과 가족생활주기의 장기화로 노인부부가족 증가..	12
나. 세대구성에 따른 부양가치관의 약화로 사회 부양부담 증가 .....	17
다. 혼인규범 구속력의 약화로 다중결혼 혹은 노인1인가구 증가 .....	19
3. 100세 시대 가족이슈 조명 .....	25
가. 가족주기의 재개념화와 관련한 가족이슈 .....	25
나. 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가족이슈 .....	26
다. 노년층의 변화와 이들에 특성에 맞는 노인세대 가족이슈 .....	28
4. 100세 시대 대비 여성가족부 관련 정책 현황 .....	30
5. 소결 .....	34



Ⅲ.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 과제(1):

가족생활재설계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역할 .....	35
1. 배경 .....	37
2. 가족생활의 현주소 및 관련 정책 현황 .....	38
가. 가족주기 다양화에 따른 가족생활 변화 양상 .....	38
나. 가족생활의 현주소 .....	41
다. 관련 정책 현황 .....	47
3. 주요 정책 아젠더 .....	48
가. 100세 시대 개인생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	48
나. 100세시대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	50

Ⅳ.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 과제(2): 노년기 가족돌봄 지원 .....

1. 배경 .....	57
2. 노년기 가족돌봄 현주소 및 관련정책 현황 .....	61
가. 노년기 가족돌봄의 현주소 및 주요 이슈 .....	61
나. 국내 관련 정책 현황 .....	62
3. 주요 정책 아젠더 .....	66
가. 기초 R&D 확대 필요 .....	66
나.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제도 기반 확대 .....	67
다. 가족돌봄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 .....	68

■ 참고문헌 .....	73
--------------	----

■ Abstract .....	77
------------------	----

## 표 목 차

<표 II-1> 100세 이상 고령자 규모 .....	13
<표 II-2>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65세 이상) .....	18
<표 II-3> 65세 이상 이혼·재혼 건수 .....	20
<표 II-4>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혼인상태별 비율 추이 .....	23
<표 II-5>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비율 .....	24
<표 II-6> 여성가족부 2011년도 업무계획 중 100세시대 가족관련과제 .....	30
<표 II-7> 건강가정기본계획 사업 중 100세 시대 가족관련과제 .....	31
<표 II-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 중 100세 시대 가족관련과제 .....	33
<표 III-1> 가족주기 발달 단계와 평균연령 .....	37
<표 III-2> 함께 살고 있는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 .....	44
<표 IV-1> 한국의 연도별 노인가구형태별 분포 .....	57
<표 IV-2> 노인 돌봄의 제공자(65세 이상) .....	58
<표 IV-3> 노인과 주돌봄자의 관계 및 특성 .....	59
<표 IV-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63
<표 IV-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개요 .....	63
<표 IV-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개요 .....	64
<표 IV-7> 노노케어(노인일자리사업 중 복지형: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	65
<표 IV-8> 미국의 가족돌봄자를 위한 self-care 교육 프로그램: Powerful Tools for Caregivers .....	71

## 그림 목 차

<그림 II-1>	100세 이상 고령자의 남녀 규모 및 성비 .....	13
<그림 II-2>	가구원 수 규모(1980~2010) .....	15
<그림 II-3>	세대구성 추이(1980~2010) .....	16
<그림 II-4>	세대별 가구구성 추이 및 전망(혈연가구대비) .....	16
<그림 II-5>	노인부부가구 비율전망(전체 부부가구대비) .....	16
<그림 II-6>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15세 이상) .....	17
<그림 II-7>	초혼연령별 혼인(60세 이상) .....	19
<그림 II-8>	결혼에 대한 견해(60세 이상) .....	20
<그림 II-9>	재혼에 대한 견해(60세 이상) .....	21
<그림 II-10>	이혼에 대한 견해(60세 이상) .....	21
<그림 II-11>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	22
<그림 II-12>	1인 가구 중 노인 가구 비중 전망 .....	22
<그림 II-13>	100세 시대 가족 전망 .....	24
<그림 III-1>	가족주기 가상시나리오 .....	40

# I

##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연구의의 및 성격	6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고령사회의 진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태어나서 100년을 살 수 있는 100세 사회는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 전격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100세 투자사회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급속한 고령화 사회 대비 노력의 기존정책 점검(제1차·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Vision 2030, 미래비전 2040 등)과 손에 잡히는 과제(Action oriented plan) 발굴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동 프로젝트는 ‘인생 100세 시대 정책의 Framework(안)’으로 추진되면서 저출산·고령화의 추세에도 사회적 역동성과 경제적 활력이 넘치고 세대간 공생발전하는 ‘100세 구현’을 목표로 하여 4대원칙(자립지원, 기회균등, 참여확대, 세대간 상생)하에 ‘공론화’ 및 ‘정책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음. 그리고 매슬로우의 인간의 5대 욕구(생존, 안전, 사회, 존엄, 자아실현 욕구)를 반영한 건강한 삶, 안전한 삶,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 일하는 삶을 강조한 6개분야에서의 검토과제들이 부처별로 논의되었음.<sup>1)</sup>
  - 이에 여성가족부는 안전하고 안정된 삶(노후생활)과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 주제와 관련해 ‘100세 시대, 가족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세부주제화 하였음.
-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 11.0%이며, 2018년에는 14.3%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09년 현재 65세 남자는 앞으로

1) 6개분야는 다음과 같음: ①(일자리) 중고령자 일자리 창출·제공 ②(경제력 강화) 미래대비를 위한 자산관리 ③(산업화) 100세 시대의 新수요 대응 ④(사회참여) 봉사·교육 등 알찬 여가활동으로 삶의 의미 찾기 ⑤(건강한 삶) 건강·주거 등 안전한 생활지원 ⑥(인프라) 100세 시대 인프라구축임. 이를 기반으로한 검토과제 발굴 주제는 직업능력제고, 취업장애 해소, 일자리 확대/미래대비를 위한 교육 등 자기개발/건강관리강화, 시니어의 자존감(삶의 의미)제고/신체적 자산관리/100세 시대에 새로운 니즈(Needs) 대응/안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100세 시대준비를 위한 지원인프라 구축 등임 (기획재정부의 100세 투자사회 관련 자료)

#### 4 ●●● 100세 투자사회 대비 가족정책 과제 연구

17.0년, 여자는 21.5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됨으로써(통계청, 2011),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는 100세 시대 도래를 전망하고 있음.

- 특히, 한국사회는 미국, 프랑스 등 선진외국과 달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도 가장 낮은 수준임. 이러한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은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규모 축소 및 세대구성 단순화 등 가족 내 많은 변화를 동반하고 있음. 100세 시대 가구형태로 부부+자녀가구, 부부노인가구, 그리고 노인1인가구들이 다수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존의 100세 시대 논의들을 종합해 본 결과 직접적인 여성·가족의 문제는 가족의 像과 역할, 고령자에 대한 부양부담의 이슈가 주목되었음.
- 이러한 여성·가족이슈는 100세 시대에 대한 논의가 노령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회구성원에게 100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기 삶을 설계해야 하는 시대라는 관점에서 더욱 100세 시대 대응 기본적인 정책이슈로서 강조될 수밖에 없음.
- 이에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세부정책 방향 하에 100세 시대 가족환경변화와 가족이슈들을 살펴보고 여성·가족이슈로 부각된 가족역할과 고령자 부양부담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우선적 정책과제로 가족생활재설계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역할과 노년기 가족돌봄지원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함.

##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연구내용

-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가족이슈 조명
  - 100세 시대 정의 및 가족논의의 의미
  -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시사점
  - 100세 시대 가족이슈 조명

○ 100세 시대 대비 여성가족부 정책 현황

□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과제 (1) : 가족생활재설계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역할 정립

- 배경
- 가족생활의 현주소 및 관련정책 현황
- 주요 정책 아젠더

□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과제 (2) : 노년기 가족돌봄 지원

- 배경
- 노년기 가족돌봄 현주소 및 관련정책 현황
- 주요 정책 아젠더

## 나. 연구방법

□ 문헌 및 관련자료 분석

□ 관련 통계자료 점검 및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관련전문가 : 김미령 교수(대구대), 김성숙 실장(국민연금공단 연금제도 연구실), 김정석 교수(동국대), 김정현 교수(용인대), 김주현 선임연구원(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김진 박사(서울시복지재단), 김형기 교수(호서대), 김혜영 교수(숙명여대), 박영란 교수(강남대), 박지영 교수(상지대), 민현주 교수(경기대), 우국희 교수(서울기독대), 전미애 교수(충신대) 등 15인

- 주요내용 : 가족환경 변화 시사점 및 이슈 발굴, 가족생활재설계와 지역사회에서의 가족의 역할, 노년기 가족돌봄 분야 세부정책과제 논의

□ 관련부처와의 협의 및 과정 참여

- 여성가족부 관계자와의 지속적 협의
- 기획재정부 100세시대 종합컨퍼런스 참여로 가족이슈 부각

## 6 ●●● 100세 투자사회 대비 가족정책 과제 연구

- 주제 :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하나?
- 일시 및 장소 : 2011.12.8.(목) 대한상공회의소
- 발표 : 100세 투자사회 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 결과 : 남성의 은퇴후 가족적응문제 (은퇴남편 중후군, 가사적응 등), 노년기 돌봄문제 등 주요 가족정책 이슈로 언론화.

## 3. 연구의의 및 성격

### 가. 연구의의

- ☐ 100세 시대 도래에 대해 개인, 가족, 사회, 국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가족정책 기초자료의 역할
- ☐ 새로운 가족정책대상 집단의 출현(노인가족, 노인1인가구, 신노령층 등)에 따른 가족정책 패러다임 논의 근거자료 역할
- ☐ 젊은 시절부터 미래에 대한 준비와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수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의 근거

### 나. 연구의 성격

- ☐ 본 연구는 관련부처의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아젠더 발굴을 모색한 것임. 따라서 발굴된 정책아젠더들은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구체화된 계획과 실질적인 정책활용을 위한 관련부서와 전문가들간의 지속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할 것임
- ☐ 또한 부각된 관련 가족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모색은 추후과제이면서 관련분야의 연구들과 연계해야할 지점들임. 노인가구 지원, 노인 공동주거 마련, 다중결혼·노인1인가구의 증가에 대한 결혼 관련 법적절차



와 상속에 관한 법제도 준비, 퇴직 후 부부만의 시간에 대한 여가활용 혹은 정년연장의 대안,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연금제도의 수정, 노인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내용들은 보다 심층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연구동향을 통해 여성·가족관점에서 실질적인 정책과제로서 모색되어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2011, 「100세 시대 종합컨퍼런스 자료집」 참조).

## II

#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가족이슈 조명

1. 100세 시대의 정의 및 가족논의의 의미	11
2.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시사점	12
3. 100세 시대 가족이슈 조명	25
4. 100세 시대 대비 여성가족부 관련 정책 현황	30
5. 소결	34

## 1. 100세 시대의 정의 및 가족논의의 의미

- ‘100세 시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0세 시대’를 명목 그대로 정의할 경우, 가장 단순하게는 ‘평균 기대수명이 100세에 도달하는 시대’ 또는 ‘100세 이상 장수인구가 다수인 시대’로 정의할 수 있음(장혜경·김은지, 2011). 따라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대(최빈사망연령)가 90세가 되면 100세 이상 생존자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장수사회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음(조경옥 외, 2011).
- 그런데 평균기대수명에 대해 전망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에 따르면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가정했을때 2100년이 되어도 여성은 96세, 남성은 92세의 기대수명을 가지게 되어 100세에 도달하지는 못함. 또한 100세 이상 인구비중을 살펴봐도, 100세 이상 인구는 2100년에 1.3%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한국사회가 명목상의 의미에서는 100세 시대에 도달하지는 않음.
- 오히려, ‘100세 시대’는 명목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으로서의 의미로 보는 것이 현실적임. 즉 건강하고 적극적인 노화를 통한 ‘인생이모작’의 달성이 가능하며 또 필요한 사회로서 정의할 수 있음. 개인수준에서 ‘노인’으로서의 생애주기를 오랜 기간 보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수준에서는 기존 범주의 ‘노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커지는 사회임. 이에 따라 모든 연령대의 사회구성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애계획을 구성하여야 하며, 건강한 ‘노인’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임(장혜경·김은지, 2011).
- 그렇다면 100세 시대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의 후반기가 연장됨으로서, 일에서 은퇴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시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 가족의 의미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함. 특히 노인들의 삶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2009년 생활시간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교제·여가활동시간은 이전 연령대보다 훨씬 많은데(전체 남성 4시간 4분, 65세 이상 남성 7시간 24분; 전체여성 4시간 30분, 65세이상 여성 6시간 20분), 이러한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비중은 더욱 높음 (전체 36.4%, 65세 이상 46.8%). 또한 다른 보고들도 은퇴 후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게는 30-40년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자녀독립 후 부부생활기간이 이전세대에 비해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가족, 특히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의 확대는 100세 시대 노인부부간의 관계나 가족의 모습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음(장혜경·김은지, 2011).

- 따라서 ‘100세 시대’는 도래할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미래를 위해 현재 해결하고 준비해야 할 과업을 제시하는 주요한 키워드로서 주목되어야함. 특히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100세 시대가 오랜 인간의 숙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00세 시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대비전략이 필요함은 분명함. 특히 100세 시대는 사회참여와 가족생활을 둘러싼 생애주기의 길이를 변화시킴으로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100세 시대 가족논의는 100세 시대 사회적·정책적 준비의 기초자료가 될수 있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 2. 100세 시대 가족환경 변화 및 시사점

### 가. 평균수명의 연장과 가족생활주기의 장기화로 노인부부가족 증가

- 100세 시대 가족환경의 변화로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고 최빈사망연령이 상승하여 100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2010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만 100세 이상 인구는 1,836명으로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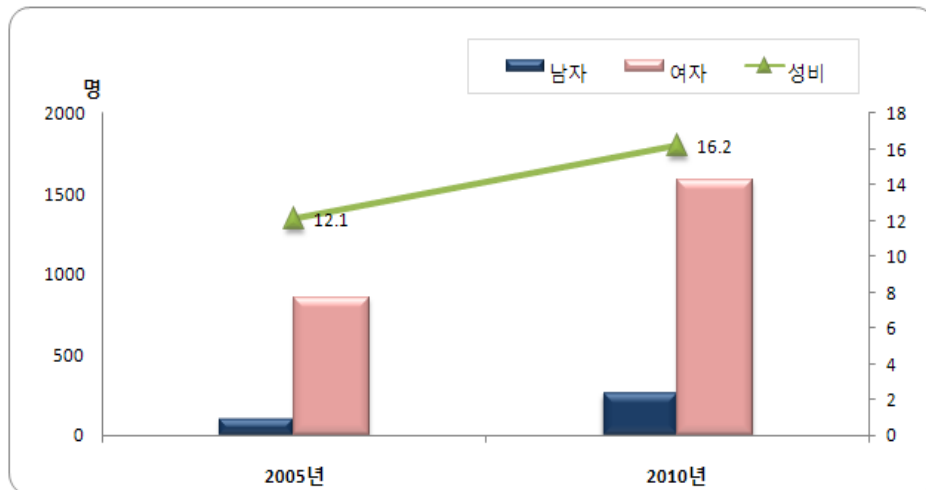
년 961명에 비해 875명(91.1%)이 증가하였음(<표1>과 <그림1>). 성별로는 남자 256명, 여자 1,580으로 2005년에 비해 남자는 146.2%, 여자는 84.4% 증가하였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60명(19.6%)으로 가장 많고,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제주도가 1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통계청, 2011).

〈표 Ⅱ-1〉 100세 이상 고령자 규모

(단위 : 명, %)

구 분	2005년(A)		2010년(B)		증감(B-A)	
		구성비		구성비		증가율
계	961	100.0	1,836	100.0	875	91.1
남 자	104	10.8	256	13.9	152	146.2
여 자	857	89.2	1,580	86.1	723	84.4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	2.0	-	3.8	-	1.8	90.0

자료: 통계청(2011). “100세 이상 고령자 집계결과”



자료: 통계청(2011). “100세 이상 고령자 집계결과”

〈그림 Ⅱ-1〉 100세 이상 고령자의 남녀 규모 및 성비

- 그러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100세 시대 도래는 축복이라는 의견 (28.7%)보다는 ‘그저그렇다(28.9%), 축복이 아니다(4.3%)’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개인에게 있어 오래 사는 것은 곧 노년기 생애 기간이 너무 길어짐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빈곤, 가족 내 부양부담 등 노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내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생 100세 현상은 우리사회 고령화 문제 뿐 아니라 길어진 인생주기에 따라 가족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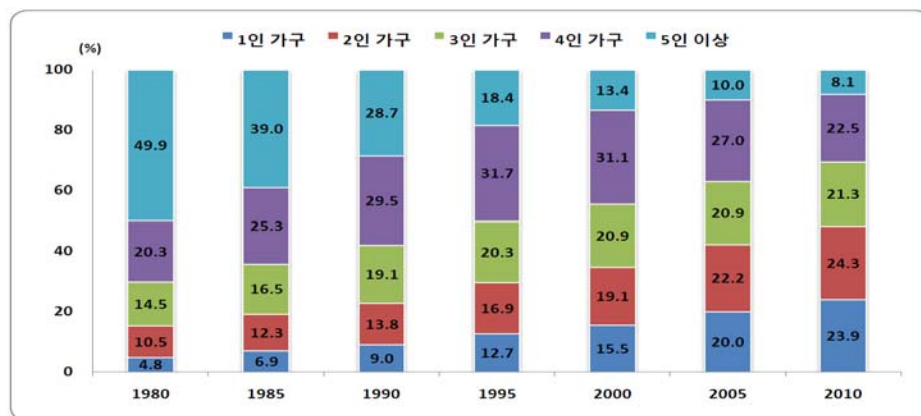
□ 100세 시대 가족환경의 변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노인부부 가구의 증가임. 특히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자녀의 가치관 변화는 더 이상 노후대책이 아닌 정서적 가치로서 의미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자녀 수 감소는 성인자녀 및 노부모의 동거 및 부양의식도 약화되고 있음. 또한 100세 시대 도래는 무엇보다 길어진 노년기로 인한 가족생활 주기의 장기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 있음.

- 가족생활 주기(Family Cycle, Family Life Cycle)란 사람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미혼, 결혼, 출산, 육아, 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말함. 가족은 결혼으로 ‘형성’되고, 자녀의 출산으로 ‘발전·확대’되었다가 자녀의 결혼, 분가로 ‘축소’되면서 마지막 단계인 사망으로 이러한 주기를 종결하게 됨(유영주 외, 2004). 그러나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 초혼연령 증가는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고 있으며, 특히 평균수명 증가는 자녀 독립 후 부부만이 남게 되는 이른바 가족주기의 후기 부분이 연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즉, 소자녀 출산 및 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가족생활주기는 이전세대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있음. 자녀출산기가 감소하고 중·노년기 부부만이 생활하는 기간이 대폭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되면서, 부부중심적 가족생활로 재편되었음. 이로써 부부중심 생활이 이전세대에 비해 약 1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족생활 주기상 마지막 단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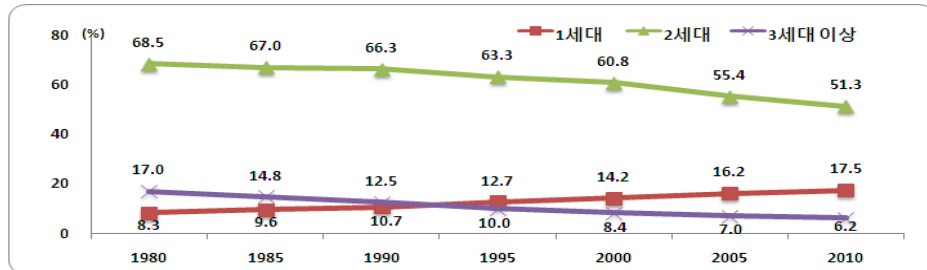
장기간 지속되는 이른바 ‘가족주기의 장기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자녀독립 후 길어진 노년기에 부부만 남게 되는 빈동우리 시기는 이에 따른 관계내 변화와 재적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임(한경혜, 2011).

□ 가족생활 주기의 장기화 현상은 자녀가 떠난 빈동우리 시기로 부부만 생활하게 되면서 이들의 생활기간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가족의 활동 비중이 커지는 시기가 됨. 또한 2010년 현재 평균 가구원 수는 2.69명으로써 2005년 2.88명 보다 0.19명 감소하였으며(<그림 Ⅱ-2>), 1세대 가구는 2005년 16.2%에서 2010년 17.5%로 1.3%p(통계청, 2011)로 증가함으로써 세대구성에 따른 변화로 자녀가 없는 부부만의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그림 Ⅱ-3>과 <그림 Ⅱ-4>). 전체 부부가구 대비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반수를 넘는 54.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그림 Ⅱ-5>). 이러한 세대구성에 따른 변화는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100세 시대 도래로 인해 점차 노인단독 가구 또한 더욱 증가할 것임.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른 정책의 형태,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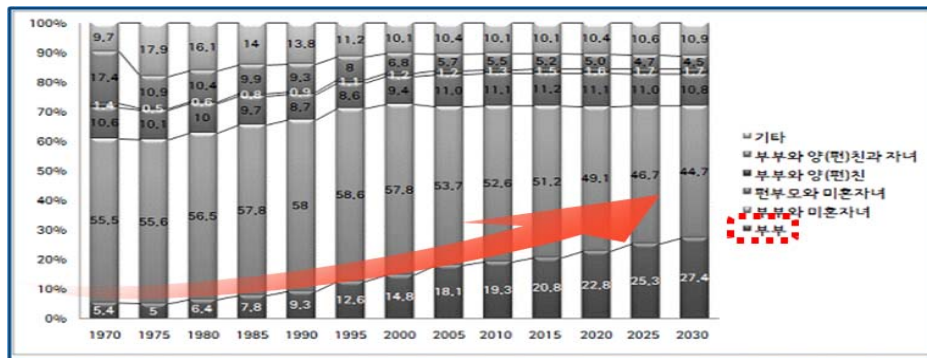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그림 Ⅱ-2> 가구원 수 규모(1980~2010)



자료: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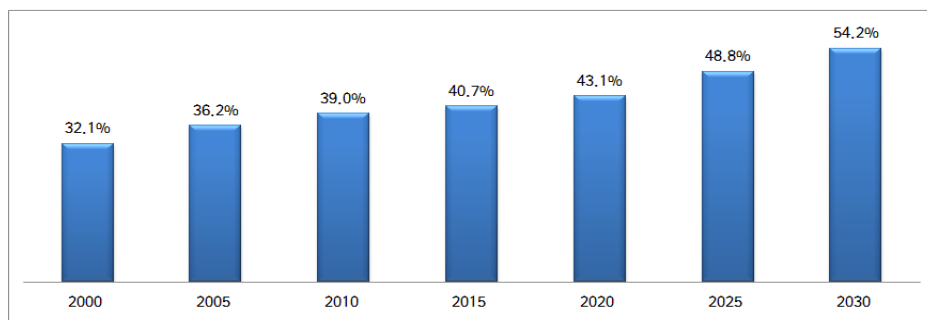
〈그림 II-3〉 세대구성 추이(1980~2010)



자료: 1990-2000년은 통계청(각년도) 「인구총조사」; 2005년 이후는 통계청(2007), “장래가구추계”에서 재계산됨.

\* 1인가구 및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혈연가구대비비율임.

〈그림 II-4〉 세대별 가구구성 추이 및 전망(혈연가구대비)



자료: 통계청(2007), “장래인구추계”에서 재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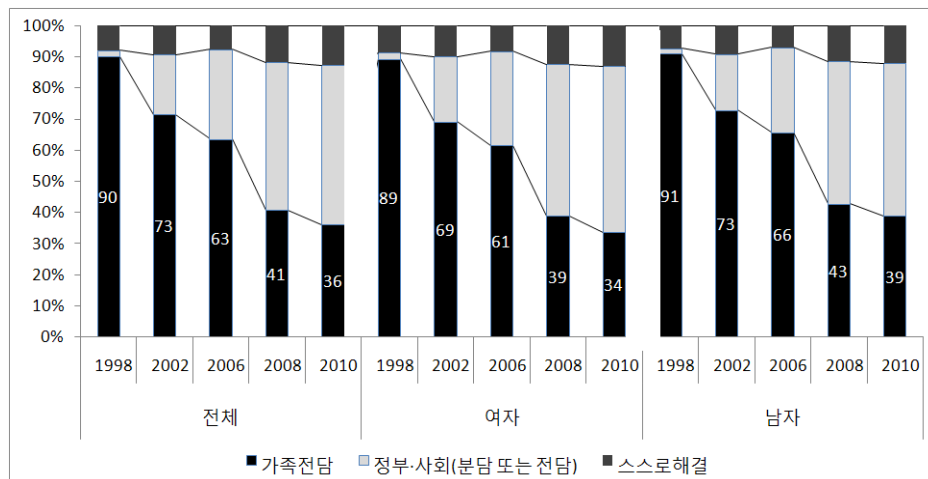
〈그림 II-5〉 노인부부가구 비율전망(전체 부부가구대비)



## 나. 세대구성에 따른 부양가치관의 악화로 사회 부양부담 증가

□ 가족 내 변화는 세대구성을 둘러싼 가치관 측면에서도 확인됨.

- 실제로 노인부양에 대한 규범적 구속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노인들의 자녀동거에 대한 선호 역시 감소하고 있음.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그림 Ⅱ-6>), 가족이 전담해야 한다는 비율은 1998년 대다수인 90%에서 2010에는 1/3수준인 36%까지 크게 감소하였으며, 정부·사회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응답이 크게 늘어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성인지통계」에서 재구성

〈그림 Ⅱ-6〉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15세 이상)

- 이와 함께 노인들의 자녀동거에 대한 선호도 감소하고 있음.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율은 2007년 42.9%에서 2009년 현재 39.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Ⅱ-2>)

〈표 II-2〉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65세 이상)

(단위: %)

	계	같이 살고 싶음	같이 살고 싶지 않음
2007	100.0	42.9	57.1
2009	100.0	39.4	60.6
65~69세	100.0	36.1	63.9
70~79세	100.0	39.8	60.2
80세 이상	100.0	46.8	53.2
(독거노인)	100.0	28.5	71.5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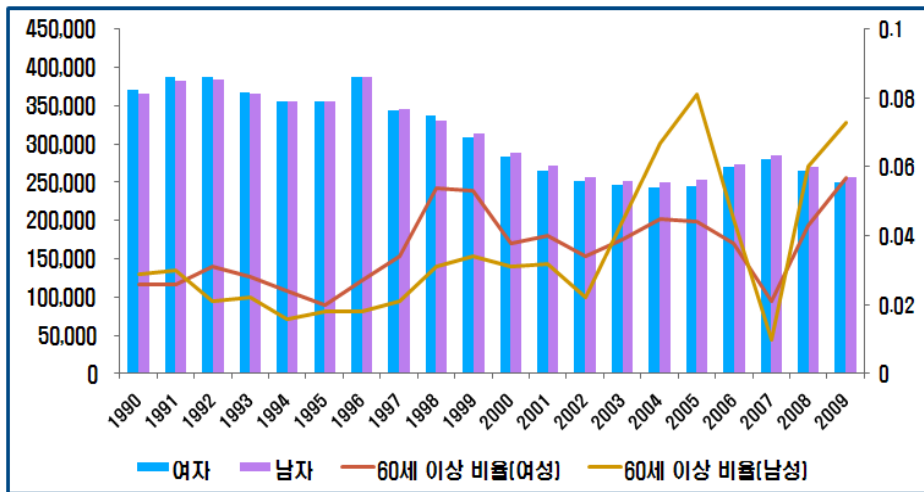
□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는 노인부부 가구 및 독거노인 가구 증가를 살펴볼 때, 그들 자신의 부양이나 안정적인 정서적인 지원을 자녀세대에게 쉽사리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장혜경·김은지, 2011), 이는 노인부양 문제를 더욱 초래하게 됨.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9.0%이나, 노후준비가 안된 고령자 중 ‘자녀에게 위탁할 계획’은 점차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실제 100세 이상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중 96.3%가 돌보는 사람이 있으며, 돌보는 사람으로는 자녀 및 그 배우자가 56.5%(통계청, 201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자녀화 현상 및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이들의 부양체계 붕괴에 따른 가족 내 갈등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임.

□ 한편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길어진 인생주기는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 생존하게 되는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임. 즉, 100세 시대는 성인 자녀들에게 있어 부양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노인이 된 자녀가 100세 노부모를 부양하게 되는 이른바 노노케어 현상으로 가족 내 세대간 노인부양과 관련된 갈등이 나타나게 될 것임.

## 다. 혼인규범 구속력의 약화로 다중결혼 혹은 노인1인가구 증가

### 1) 다중결혼의 가능성

- 혼인의 주체로서 부각되지 않았던 노인의 경우에도 혼인규범 구속력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임. 초혼건수 경우 60세이상 노인비율은 아직까지 0.1% 미만으로 매우 작지만, 그 증감추이에 있어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Ⅱ-7>).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성인지통계」에서 재구성.

〈그림 Ⅱ-7〉 초혼연령별 혼인(60세 이상)

- 재혼과 이혼의 경우를 보면 그 추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남 (<Ⅱ-표 3>). 65세 이상 고령자 재혼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 현재 남자 2,099건, 여자 702건으로 10년 전(2000년)에 비해 각각 2.2배, 3.5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혼 후’ 재혼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0년과 비교하여 남자는 4.1배, 여자는 5.5배 늘어났음(통계청,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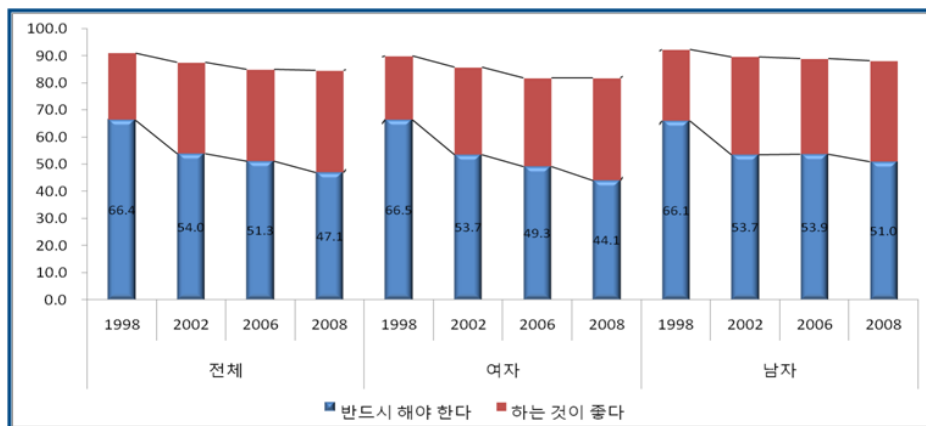
〈표 Ⅱ-3〉 65세 이상 이혼·재혼 건수

(단위 : 건)

	남 자				여 자			
	1995	2000	2005	2010	1995	2000	2005	2010
이혼건수	68,279	119,455	128,035	116,858	68,279	119,455	128,035	116,858
65세 이상	591	1,321	2,589	4,346	138	423	916	1,734
재혼건수	39,838	43,370	59,662	53,043	39,843	48,132	66,587	57,451
65세 이상	940	971	1,566	2,099	169	202	413	702
(사별 후)	691	607	687	624	95	109	171	186
(이혼 후)	249	364	879	1,475	74	93	242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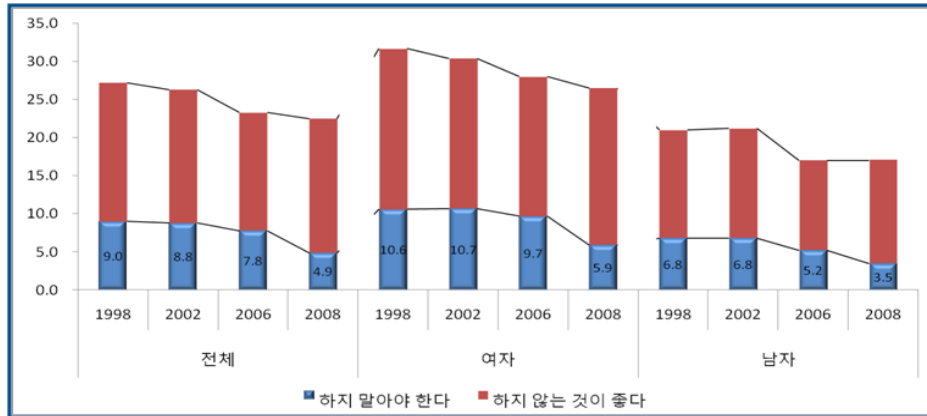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년도

- 혼인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결혼·이혼·재혼의 당위성 약화가 노인들에게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줌. 60세 이상의 결혼에 대한 견해에 ‘반드시 해야 한다’의 경우는 1998년에 66.4%였던 반면 2008년에는 47.1%로 감소하였으며 재혼의 경우는 ‘하지 말아야 한다’가 9.0%에서 4.9%로 줄어들었으며 이혼이 ‘절대로 안된다’의 경우에는 44%에서 38.7%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Ⅱ-8>, <그림 Ⅱ-9>, <그림 Ⅱ-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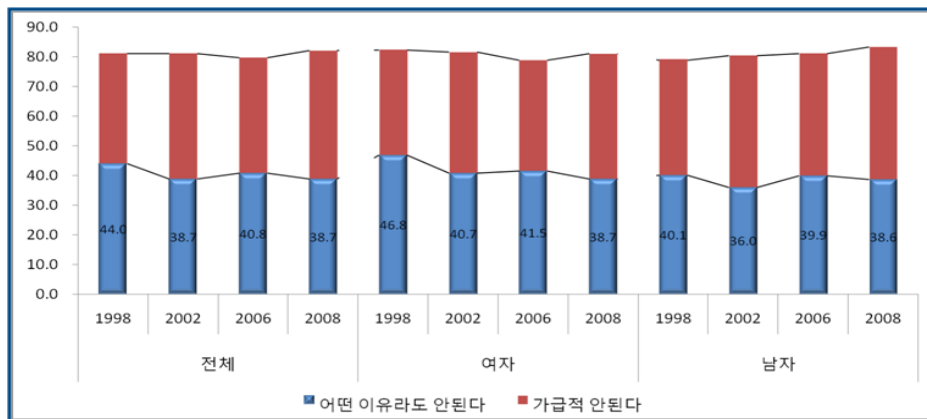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성인지통계」에서 재구성.

〈그림 Ⅱ-8〉 결혼에 대한 견해(60세 이상)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성인지통계」에서 재구성.

〈그림 Ⅱ-9〉 재혼에 대한 견해(60세 이상)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성인지통계」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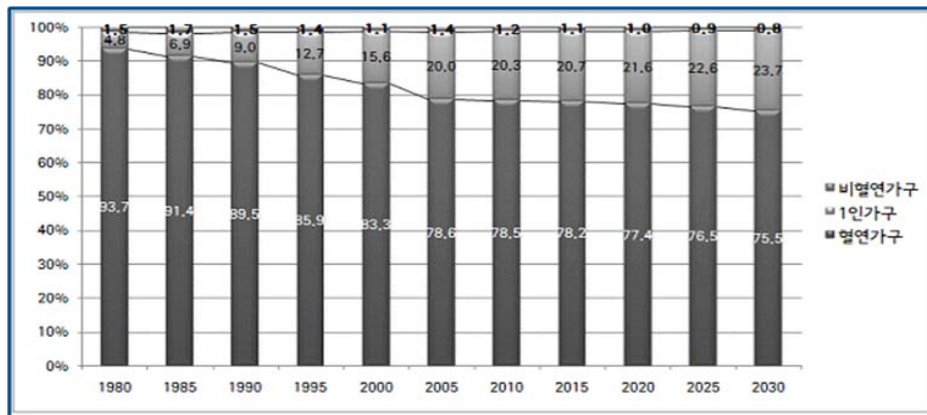
〈그림 Ⅱ-10〉 이혼에 대한 견해(60세 이상)

## 2) 노인1인가구 증가

- 최근 부각되는 가족변화의 중요한 한 흐름은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임 (<그림 Ⅱ-11>). 1980년대에는 5%에도 미치지 못했던 1인가구의 비율이 2030년에는 2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1인 가구는 세대와 혼인, 어떤 축으로도 관계 맺지 않고 있는 단신가족으로서, 새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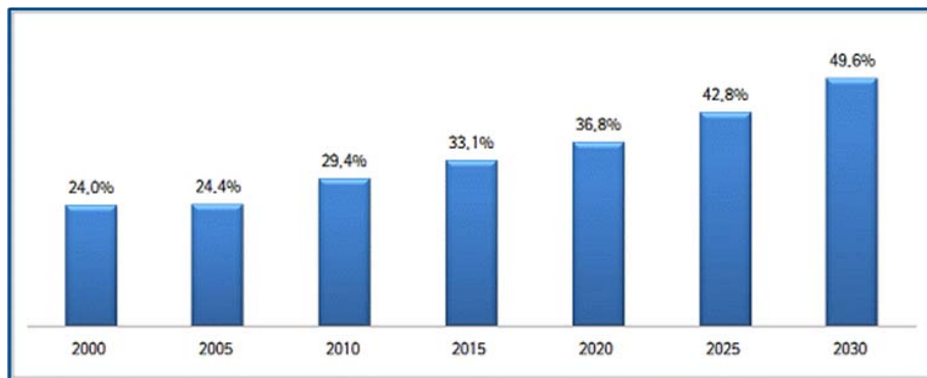
## 22 ●● 100세 투자사회 대비 가족정책 과제 연구

부각되는 생활형태임. 그런데 이와 같은 1인가구의 증가는 노인가구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Ⅱ-12>).



자료: 1990-2000년은 통계청(각년도) 「인구총조사」; 2005년 이후는 통계청(2007), “장래가구추계”에서 재계산됨.

〈그림 Ⅱ-11〉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자료: 통계청(2011), “고령자통계”

〈그림 Ⅱ-12〉 1인 가구 중 노인 가구 비중 전망

- 이와 같은 노인 1인가구 증가는 세대 측면에서 세대축소와 혼인 측면에서 혼인관계의 다양화가 중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노인 1인가구는 자녀

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음. 예컨대 2009년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 중 71.5%가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음. 또한 혼인의 측면에서도 미혼 및 이혼으로 인한 노인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아직까지 노인1인가구에서 사별의 절대비중은 크지만 혼인상태의 증감율을 보았을때 이혼 및 미혼 1인가구증가율이 사별1인가구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표 II-4>).

〈표 II-4〉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혼인상태별 비율 추이

구분	전체			사별(가구)			이혼 (가구)			미혼(가구)		
	2000	2005	증감율	2000	2005	증감율	2000	2005	증감율	2000	2005	증감율
전체	542690	782708	44.2%	502323	710717	41.5%	12638	25782	104.0%	4213	8659	105.5%
여자	463052	649553	40.3%	442994	616597	39.2%	7437	13365	79.7%	2856	5604	96.2%
남자	79638	133155	67.2%	59329	94120	58.6%	5201	12417	138.7%	1357	3055	125.1%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성인지통계」; 통계청(2005), 「인구주택총조사」

□ 가족형태의 이러한 ‘개인화’ 경향은<sup>2)</sup> 세대간의 동거가 축소되고 결혼의 영속성도 약화되면서 인생후반기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노인가족의 개인화 경향은 인생 후반기의 적극적인 가족설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100세 시대에 걸맞는 활기찬 노년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 그러나 현재 노인가족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긍정적으로만은 바라볼수 없게 하고 있음. 2009년의 경우 최저생계비 미만의 빈곤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1/3에 달하는 31%가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그

2) 인구통계적 의미에서 보면 한국가족의 형태는 ‘핵가족화’ 또는 ‘개인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세대 측면에서는 3세대 이상 가족이 감소하고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족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혼인 측면에서는 결혼율이 감소하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됨.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의 배경으로서 가족의 규범적 구속력이 약화되고, 선택과 기회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은 여러 연구들에서 발견되고 있음(Beck, 2002; 장혜경외, 2006; 김수정, 2007; 김혜영 2008; 장경섭,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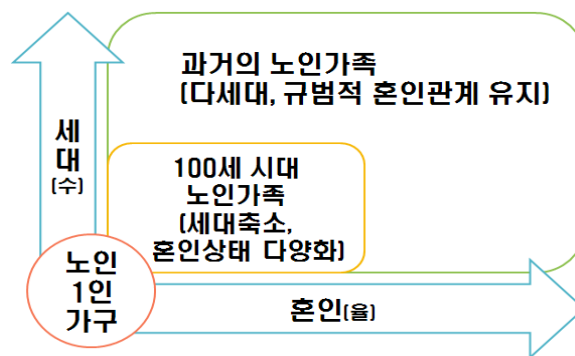
비중이 39%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됨(<표 II-5>). 이와 같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통한 지지망이 와해될 경우, 노인들은 원치 않는 개인화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I-5〉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비율

	남자		여자		합계	
계	622,400	100.0%	840,740	100.0%	1,463,140	100.0%
노인가구주가구	128,115	20.6%	326,300	38.8%	454,415	31.1%

자료: 보건복지부(200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에서 재계산

- 이상의 논의를 통해 100세 시대 가족변화는 세대측면에서 세대간 동거의 경향이 축소되어 노인만으로 구성된 부부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이를 둘러싼 규범적 구속력 또한 약화될 것이라는 점임. 한편 혼인주체로서 노인의 초혼, 이혼, 재혼이 증가하고 혼인규범 또한 느슨해지고 있어 세대와 혼인효과의 교차지점으로서 노인1인가구 증가 부각이 특징임 (<그림 II-13>) (장혜경·김은지, 2011).



자료: 장혜경·김은지(2011)에서 재인용

〈그림 II-13〉 100세 시대 가족 전망



-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100세 시대의 도래가 사회의 구조 전반에 커다란 변혁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변혁의 기초가 되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가족변화 현상과 추이를 진단을 통한 시사점은 가족주기의 재개념화, 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가족이슈, 노년층의 변화와 이들에 특성에 맞는 노인세대 가족이슈를 부각시킴. 다음절에서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명해 볼 것임.

### 3. 100세 시대 가족이슈 조명<sup>3)</sup>

#### 가. 가족주기의 재개념화와 관련한 가족이슈

##### □ 생애주기 및 가족주기의 새로운 개념화

- 평균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100세 시대에 적합한 생애주기의 구분이 필요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의미 및 가치 부여가 필요함. 또한 가족주기에 대한 개념과 시기 구분 역시 저출산, 만혼화 경향이 적실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화를 통해 중장년세대부터 노인세대들까지 보다 장기적이고 역동적인 삶의 주체자로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노령기 뿐 아니라 다양한 생애단계에서의 가족형성, 확대, 해체 등이 반영되는 사회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임. 이에 가족법과 정책상 배우자와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하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이혼, 상속제도의 재검토 이슈가 부각될 것임.

##### □ 퇴직이후 삶에 대한 이해 및 준비의 조기화

- 퇴직은 단순히 직업역할의 상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의 변화된 삶에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요하는 커다란 생애 사건임. 오늘날과

3) 100세 시대 대비 가족이슈조명은 본 연구에 자문을 해주신 우국희교수, 김형기교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구진에 의해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였음.

같은 노동지향적 산업사회에서 직업은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 평가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현재의 노인세대는 가정과 직장의 분리에 익숙해 있으며,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내며 일 중심적인 생활을 해옴. 퇴직은 이러한 기존의 생활방식을 전면적으로 뒤엎고, 직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일이 아닌 여가나 ‘그냥 쉼’이 대부분인 일상을 살아가게 함. 최근 퇴직자들의 충격과 심리적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퇴직준비 프로그램들이 기업이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제공될 필요가 있음.

#### □ 노년기의 재정립

- 퇴직자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쉬다가 간다라고 생각하고 노후설계가 안되어 있음. 실제 80세의 한 노인은 자신이 65세 퇴직이후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다고 하며, 20년 인생을 허송세월했다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100세까지 살지 모른다고 할 때 20년이란 긴 인생이 자신앞에 놓여진다고 생각하면 과거처럼 무계획적으로 살수 없다고 말함. 이 노인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가족생활주기-의존기, 경제적 독립기, 퇴직 이후 의존기-가 빠르게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의 노년기, 노인 개념에 따를 때 노년기는 40년 이상의 가장 긴 하나의 인생주기에 해당됨. 40년 이상에 해당되는 인생의 다채로운 삶을 새롭게 규정하고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나. 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가족이슈

#### □ 남성노인의 가족생활 적응 필요

- 노년기를 보내는 방식과 관련하여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에게 이 과정이 보다 낯설고 힘들. 노후를 사는 일반적인 방식이 여성에게는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남성들에게는 없었음. 여성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손자녀를 돌보거나 가사일을 돕는 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남성노인의 경우는 가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가족 내에서 그 존재의 의미는 매우 미약할 것임.

- 특히 100세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첫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남녀의 이분법적인 성역할, 그리고 부양에 대한 의식 등에 있어 전통적 가부장성과 양성평등적인 의식이 교차하는 세대이므로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가족의 특성 및 사회적 역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가부장적 성향이 강한 남성노인과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여성노인간의 성역할 갈등 및 부부간 역할 조정 실패에서 비롯될 수 있는 어려움 (황혼 이혼, 부부간 방임이나 학대, 폭력 등)을 명확하게 조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제시 필요할 것임.

#### □ 노년기 부부관계 주목

- 과거 노년기 부부관계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황혼이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노년기 부부관계, 노년기 부부간의 갈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을 보면 2010년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율, 즉 황혼이혼율은 전체 11만 6천여 건에서 2만 7천건으로 23.1%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의 20.1보다 3% 포인트나 증가한 것임. 전체 이혼 건수는 만 건 가까이 줄어드는 등 최근 5년 동안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황혼이혼은 2004년에는 18.3%에서 2005년에는 18.6%, 2006년에는 19.1%로 최근 5년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지금까지 부부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개입과 프로그램들은 신혼기 부부, 중년기 부부에게만 초점을 두어 왔으며, 노년기 부부와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적 관심은 미미하였음. 100세 시대에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그 양상이 다양할수 있으므로 이를 다루기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임.

#### □ 100세 생애차원에서의 돌봄노동의 가치 및 가족관련 법제도검토

- 돌봄노동에 대한 여성노인의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더

우기 유급노동에 기인하여 각종 연금제도에 의해 기초적인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인남성에 비해 여성노인의 경우 독자적 수급권을 확보하기 어려움. 전생애에 걸쳐 여성이 수행해온 부불노동의 다양한 양상들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것이 갖는 사회적, 시장적 가치의 재평가를 통해 이들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노인기 돌봄 문제 부각

- 100세 시대는 길어진 인간수명과 함께 이들의 장기간 지속되는 질병 등 건강문제가 부각됨.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관리 시스템이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나석권, 2010). 100세 이상 고령자들 중 74.0%가 현재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으며, 그 중 치매질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1),
- 2008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는 500만 명인데 이 중 치매노인은 약 42만1천명으로, 치매 유병율은 약 8.4%로 추정됨. 향후 2010년에는 치매노인 수가 44만5천 명(8.6%), 2020년에는 75만 명(9.7%), 2050년에는 212만 7천 명(13.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치매가 당사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고통을 부가해 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0년 치매노인 수가 약 46만 명이지만, 실제 노인환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다면 치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볼 수 있음.

### 다. 노년층의 변화와 이들에 특성에 맞는 노인세대 가족이슈

#### □ 노년층의 다양성 주목 필요

- 평균 수명은 늘고 퇴직은 빨라짐에 따라 노년기 자체가 상당히 확장됨. 30년에서 4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는 노인 집단은 이제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년층의 다양성이 주목될 필요가 있음
- 노년층이 사회계층별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것임. 이들 문제에 대한

사회계층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노인1인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해석에 따른 개별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함

- 남성노인1인가구와 여성노인1인가구의 욕구와 문제유형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것임. 여성노인1인가구는 경제적 빈곤 등 기초생활유지의 문제가 우선적인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성노인1인가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문제보다 질병관리, 가사 등 돌봄기능에 대한 훈련 및 경험부족에서 비롯된 일상생활기능의 문제가 심각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
- 노인1인가구주의 결혼유무 혹은 자녀유무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보호 형태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음. 미혼의 경우 가족내 지지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사회서비스 등을 통한 대체적 보호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가족체계의 기능이 가동되는 노인1인가구의 경우는 보완적 보호기능이 필요할 것임. 따라서 100세 시대는 노인을 중심으로 주요 축을 구성하고 있는 자녀, 형제자매, 이웃(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환경) 등의 중요성 및 이들의 변화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신노년층 등장과 사회적 위치 조명

- 약 10년 이내에 노인인구의 구성에 신노년층의 비중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가 신노년층의 주류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욕구는 기존의 노인욕구와는 상이함. 이들은 잘 교육받은 노인 세대들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들은 물질적 풍요, 소비, 경제적 안정과 같은 기준에 중요성을 덜 부여하는 경향이 있음. 반면, 그들은 개인적 개발, 자기충족, 가족, 사회관계, 창조성, 미학, 정신적 탐색과 같은 가치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짐. 베이비붐 세대는 대체로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적 공헌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 물질적 공헌이나 노력봉사보다는 자기 자신의 직업적, 전문적 경력을 활용한 기여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함. 과거 노인의 자원봉사가 과거 경력이나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가 61.6%로 조사됨에 따라 신노년층에 적합한 사회적 공헌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함.

#### 4. 100세 시대 대비 여성가족부 관련 정책 현황

- 여성가족부 추진사업 중 100세 시대 정책방향과 연관된 사업을 2011년 업무계획과 “제2차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제3차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중심으로 파악해본 결과, 기추진중인 사업가운데 100세 시대 가족과 관련한 사업이 다수 있음.
- 2011년도 업무계획 중 유연근무제 확산, 가족친화기업문화 조성, 가족가치 확산교육 등이 있음.

〈표 II-6〉 여성가족부 2011년도 업무계획 중 100세시대 가족관련과제

- |   |
|---|
| <p>1.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p> <p>⑤ 공공·민간부문의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전반으로 유연근무제 확대, 사회 각 분야로 확산 선도</li> <li>○ 민간부문 유연근무제 시범운영지원(의료·금융기관 등 10여개기업)</li> <li>○ 관계부처 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협력하여 사회 전반으로 유연근무제 확산</li> </ul> <p>4. 가족사랑 키우기</p> <p>① 직장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친화기업의 인증기준·절차 등 제도 개선, 기업의 인증 참여 활성화 도모</li> </ul> <p>④ ‘좋은 부모 프로그램’ 실시 등 가족가치 확산교육 전국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가정조화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강화를 위한 아버지 교육 확대</li> <li>○ 가족친화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부모교육 실시</li> <li>○ 자녀정서 지원 등 가족유대 강화사업</li> </ul> |
|---|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사업 중 가족가치 확산, 자녀돌봄지원,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영역의 사업들은 100세 시대 대응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음.

〈표 Ⅱ-7〉 건강가정기본계획 사업 중 100세 시대 가족관련과제

【영역 1】 가족가치의 확산

영역1 가족가치의 확산		사업 내용
1-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1-1-1.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정착	1-1-1-1. 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관계교육 및 상담서비스활성화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정립을 위한 가족모델발굴·홍보 ○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
	1-1-2.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1-1-2-1. 가족단위 여가 활성화 기반 구축 ○ 가족여가 정보 제공 통합 시스템 구축·운영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문화기반시설 확대 지원 ○ 다양한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가족단위 자연 체험형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1-1-2-3.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 ○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 강화 - 품앗이 등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 - 가족간 후견(Family-Guardian) 및 가족멘토링(Family-Mentoring) 활성화
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1-2-2. 남성의 가정내 역할 교육 강화	1-2-2-2. ‘아버지 아카데미’ 운영 체계화 및 아버지 교육 활성화 ○ 아버지 아카데미 교육 모형 개발 및 보급 ○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중년기 남성,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이후 가정내 ‘아버지 소외’ 현상 완화를 위해 노년기생활, 가족관계 등 노후생활설계 프로그램 운영
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1-2-3.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1-2-3-1.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독려 ○ 드라마, 영화 등 영상매체를 통해 긍정적인 아버지상 전달 ○ 동영상 경진대회 개최,지원, 인터넷을 통한 토론의 장 마련 ○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영역 2】 가족돌봄 지원 강화

영역2 자녀돌봄지원강화		사업 내용
2-1. 자녀 돌봄지원의 다양화	2-1-3.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	2-1-3-1. 이웃간 돌봄나눔 활성화 ○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운영 확대 ○ 가족품앗이 구성·운영 활성화 ○ 등하교 동행 서비스 확산 ○ 지역돌봄지도 작성·보급
		2-1-3-2.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가칭)한마을돌보미 서비스’ 개발·보급

【영역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영역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사업 내용
4-1. 가족친화적 인 직장환경 조성	4-1-2. 유연근무 형태확산	4-1-2-2. 유연근무 형태 도입 여건 조성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교육 활성화
	4-1-3. 가족친화기 업 및 직장보육시 설 확대	4-1-3-1.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기반 마련 지원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활성화 ○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 강화
		4-1-3-3. 일·가정 양립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노력 ○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 일·가정 양립 관련 통계 개선
4-2. 가족친화적 인 지역환경 조성	4-2-1. 가족친화 지역 인프라 구축	4-2-1-1.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확보 ○ 가족친화마을 조성 매뉴얼 개발 ○ 가족친화마을 조성 시범 사업 실시 ○ 가족친화마을 지원체계 구축
		4-2-1-2. 지역의 가족안전성 강화 ○ 가족 안전 지도 제작 ○ 지역주민의 일상적 안전증진을 위한 ‘가족안심지역’설치·운영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 중에서는 여성인력활용 영역에서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100세 시대 가족의 돌봄 지원과 일과 가족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으로 구분될 수 있음.



〈표 Ⅱ-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사업 중 100세 시대 가족관련과제

영역	사업 내용
1. 여성 인력 활용	1-5-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input type="checkbox"/> 돌봄제공자 양성 및 지원제도 도입 ○ ‘돌봄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가칭)’ 제정 추진 ○ 다양한 돌봄 제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가족형태, 돌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방법 등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input type="checkbox"/> 남성의 가사 및 육아분담 확대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 남성을 대상으로 가사·양육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상담·홍보 확대 - 남성의 가사·양육 참여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시행 - 자녀와 가족에 관심을 함께 나누는 ‘좋은 아버지상’ 확립 및 캠페인 진행 ○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기업의 참여 촉진 <input type="checkbox"/> 남성 및 맞벌이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기회 확대 ○ 학부모 저녁모임(parent's Night) 확산
	1-5-4. 가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input type="checkbox"/> 기업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기준, 인증마크 개발 및 인센티브 부여 <input type="checkbox"/> 가족친화지수(FFI: Family Friendliness Index) 활용 확대 ○ 가족친화지수(FFI)를 자체 진단할 수 있는 웹시스템 개발·운영을 통한 가족친화적 경영 확산 유도 <input type="checkbox"/> 가족친화기업 모델 개발 및 사례 발굴·홍보 ○ 가족친화기업 모델 개발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교육 실시 ○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가족친화제도 도입 추진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 이상으로 살펴본 여성가족부 업무 중 100세 대응 가족관련과제들은 전반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대체로 아동, 청소년, 여성 중심의 정책지향이 강하여 장기적으로 가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정책은 아직 미약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5. 소결

- 100세 시대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가족생활주기의 장기화로 인한 노인부부가족증가, 세대구성에 따른 부양가치관의 약화로 사회부양부담의 증가, 혼인규범 구속력의 약화로 다중결혼 혹은 노인 1인가구 증가라는 가족환경으로 특징지어질수 있음. 이러한 가운데 가족주기와 관련한 가족이슈, 노인과 가족 관련한 이슈, 그리고 노년층의 다양성과 관련한 가족이슈가 부각되어 세부이슈들이 조명되었음.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100세 시대 대응 가족관련 정책과제들을 살펴본 결과 아동, 청소년,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가치 정립과 일가정생활양립 지원이 추진되고 있지만 100세 시대 고령화 가족환경과 관련한 가족이슈들이 조명되지는 못하고 있음이 파악됨.
- 100세 시대는 고령화라는 가족환경이 중요한 정책환경이 될것임. 따라서 이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적 고려와 로드맵이 필요함. 앞서 논의된 100세 시대 가족이슈들은 정책적 고려의 근간을 제공해 줄 것임. 기 추진중이거나 계획들은 가족환경변화와 조응하면서 추진점검 및 세부방향설정이 필요할 것임. 그리고 중장기적 로드맵하에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의 설정과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예산확충, 연구추진, 인프라 구축 등이 준비되어야할 것임.
-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여성가족부가 범 정부차원의 ‘100세 투자사회 프로젝트’의 검토과제로서 설정한 “100세 시대, 가족역할 재정립을 위한 정책방향”은 가족주기와 맞물리면서 우선적으로 가족생활재설계와 노년기 돌봄 이슈가 핵심이 될 것임. 이에 다음 장에서는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과제로 ‘가족생활재설계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역할’과 ‘노년기 가족돌봄 지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임.

### III

##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 과제(1):

가족생활재설계 및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역할

1. 배경	37
2. 가족생활의 현주소 및 관련 정책 현황	38
3. 주요 정책 아젠더	48

## 1. 배경

- 100세 시대 가족변화 특징의 첫째는 가족주기발달단계 중 성인자녀와의 동일세대동거기간이 길어지고, 자녀 독립이후 노년부부기간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임
- 가족주기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대체로 가족형성기, 확대기, 축소기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 유영주(1984:유영주외, 2004에서 재인용)는 우리나라 도시가족의 생활실태를 근거로 하여 가족생활주기 모형을 다음 <표 Ⅲ-1>와 같이 6단계로 설정하였으며 각주기별로 당시 인구통계에 준하여 가족주기별 연령범주를 제시하고 있음

<표 Ⅲ-1> 가족주기 발달 단계와 평균연령

주기명칭	설명	평균연령
① 형성기	결혼으로부터 첫 자녀 출산 전까지 약 1년간	23~24세
② 자녀출산 및 양육기	첫 자녀 출산부터 초등학교에 입학때까지	24~30세
③ 자녀교육기	첫 자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기	30~42세
④ 자녀성년기	첫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 군복무 중이며, 가사를 협조하는 시기	42~48세
⑤ 자녀결혼기	첫 자녀결혼부터 막내자녀 결혼까지	48~57세
⑥ 노년기	막내자녀결혼부터 배우자 사망, 본인사망까지	57세 이후

- 그러나 최근 만혼의 보편화와 더불어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과거와 달리 자녀출산에서 자녀가 결혼, 독립하여 나가는 시기까지가 매우 길어지고 있음. 특히 청년세대의 취업난으로 교육기간의 장기화와 경제적 독립의 유보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즉 성인자녀와 부모세대가 과거에 비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
- 예를 들어 40대 미혼성인자녀와 부모가 동일세대에 거주할 경우도 있게 되어 성인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함.

- 또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 분가이후 노인부부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어 노년기 부부간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필요하게 됨

□ 100세 시대 가족변화의 특징의 두번째는 각각의 가족주기에 따른 연령별주의 다양화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임

- 결혼과 출산시기 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면서 결혼·출산적령기 등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 연령별 일반적인 가족주거나 생애주기를 경험하지 않음으로써 가족주기별 평균연령을 상정하거나 일반화할 수 없게 됨.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부형의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부모회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연령스펙트럼의 다양함을 고려해야 해야하는 상황이 될 것임.

□ 100세 시대 가족변화 특징의 세번째는 노동시장 은퇴이후 가족생활시간의 장기화임.

- 한국기업의 평균정년은 55세이나 조기정년 등으로 평균 은퇴 연령이 53세임. 2009년 평균기대여명이 남자 77세, 여자 83.8세임을 고려하면 남성은 은퇴후 약 24년, 여성은 약 30년을 가족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됨. 따라서 길어진 가족시간에 적절한 가족관계 형성이 필요할 것이며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서도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될 필요가 있음

## 2. 가족생활의 현주소 및 관련 정책 현황

### 가. 가족주기 다양화에 따른 가족생활 변화 양상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초혼연령의 상승, 출산자녀수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주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특히 만혼이 보편화되고 결혼적령기 개념이 사라지면서 첫아이 출산 연령의 스펙트럼이 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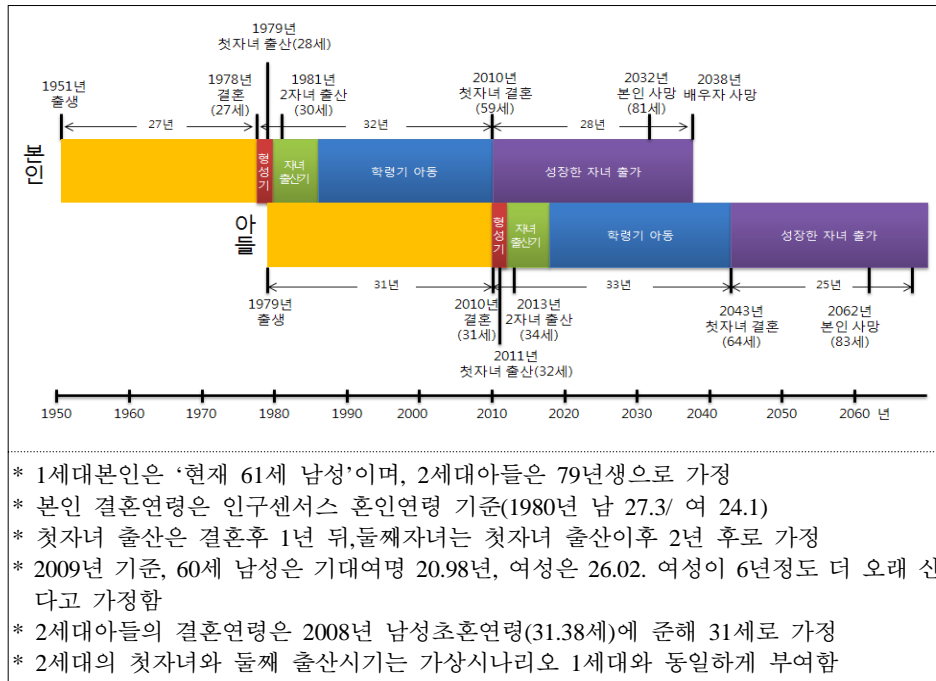
에 비해 매우 넓어지고 있음. 더욱이 자녀 교육기간도 길어지고, 청년취업 문제로 인해 경제적 독립도 늦추어지고 있음

- 2007년 1차 조사된 여성가족패널조사 데이터에 나타난 여성들의 초혼 시기를 보면 연령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집단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초혼연령이 낮아짐. 연령대별 평균연령은 20대 24.86세, 30대 26.90세, 40대 26.26세, 50대 24.13세, 60대 23.41세로 나타나(김혜영 외, 2010:25-26) 과거보다 최근에 결혼한 여성일수록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음이 나타남.
- 첫 자녀 출산연령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으며 40대 초산도 늘어나고 있음. 정우진외(2006)는 2000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30세 이상 늦게 결혼한 여성의 첫 출산 간격은 젊은 나이에 결혼한 여성에 비해 훨씬 길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늦게 결혼한 여성이 아이도 늦게 갖는 경향이었음.

□ 아래 <그림 III-1>은 1951년생 아버지와 첫 자녀로 1979년생 아들의 가족 주기를 출생코호트의 평균 혼인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것임.<sup>4)</sup>

- <그림 III-1>에 의하면 우선 가족형성부터 자녀독립기까지의 기간이 1세대와 비교하여 2세대의 경우 약간 길어지고 있음.
  - 이는 현재의 평균결혼 연령을 적용하여 가정한 것으로 최근의 만혼과 출산연기 현상을 고려한다면 2세대의 결혼시기가 늦추어지면서 1세대의 자녀독립기이전 기간은 <그림 III-1>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

4) 결혼 및 출산은 통제하기 어려운 생애이벤트로 개인별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평균결혼연령 등 만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기에 한계가 있으나 가족주기의 변화를 가독성높게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연구진의 의도였음을 밝힘.



〈그림 Ⅲ-1〉 가족주기 가상시나리오

- 그러나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수명이 연장됨으로 위의 가족주기 가상시나리오는 제시된 2세대아들의 가족주기 발달단계와도 다르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됨.
- 예측되는 변화는 ① 2세대의 교육기간 연장, 경제적 독립 연기, 결혼 지연 등으로 인해 성인자녀와 부모세대가 동일가족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것, ② 기대여명의 연장으로 노년기 부부생활기간이 장기화된다는것, ③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후 가족생활기간이 증가하는것, ④ 손자녀와 부모세대, 조부모세대 등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멀티 제너레이션가족이 증가할 것이라는점 등임

## 나. 가족생활의 현주소

- 100세 시대 예측되는 가족생활변화 양상과 연계하여 가족생활의 현주소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음.
- 남성가장의 장시간 노동과 가족생활시간 부족
  - OECD 사회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한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천 25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었음. 또 OECD 회원국 상위 50% 평균보다 40%나 길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됨(OECD, 2011)<sup>5)</sup>
  - 통계청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20세 이상 성인의 의무생활시간 중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등 가사노동시간이 평균 2시간 10분으로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한 시간은 충분치 않았음
    -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사용정보만 전달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활동하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시간의 경우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므로 성인과 기혼자의 시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임.
    - 한편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도 남성이 여성보다 적었음. 성인 남성과 여성의 시간 사용을 비교하면 일하는 시간은 남자(4시간 52분)가 여자(2시간 48분)보다 2시간 4분 많은 반면, 가사노동시간은 여자(3시간 35분)가 남자(42분)보다 2시간 53분 많음(통계청, 2009)
    - 한편 맞벌이가구 남편은 가정관리에 19분, 가족보살피기에 20분을 사용하며, 맞벌이가구 남편은 가정관리 24분, 가족보살피기 18분임. 반면 맞벌이 부인은 가정관리에 2시간 38분, 가족보살피기에 42분을 사용하여 여성보다 남성이 가정관리 및 가족관련 필수노동시간이 매우 적었음(통계청, 2009)
  - 여성가족부 「제2차 가족실태조사」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하루 평균여가시간은 평일의 경우 평균 106분, 휴일은 평균 182분으로 대략 2시간 이내임 (여성가족부, 2010: 562-569)

5) <http://www.oecd.org/dataoecd/37/2/48225033.pdf>



- 성별로 보면 평일의 경우 남성은 98.8분, 여성은 113.3분으로 여성이 약 15분정도 더 많았음. 연령별로는 60대이상 집단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으며 30대 집단도 122.9분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음.
- 또한 맞벌이가족은 1시간 31분, 홀벌이는 1시간 57분으로 홀벌이가 더 높았음
- 한편 여가활동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TV시청으로 나타나 가족이 함께 활동하기보다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나타남. 즉 2시간이내의 짧은 시간동안 주로 TV시청을 한다는 것은 가족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수동적인 가족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보여짐.
-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 중 지난 1년 동안 부모와 함께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여행을 한 비율은 29.0%로 10명중 3명에 불과함 (통계청, 「2008년 사회조사」).
- 부모와 함께 「영화관람」을 한 경우가 64.6%로 가장 많았고, 연극·음악회 등 「공연관람」은 12.6%, 「스포츠 관람」은 10.8%,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장 관람」은 10.0%, 여행을 한 청소년은 53.7%임
-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대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자녀의 대부분이 부모와의 대화가 대체로 혹은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아버지와의 대화부족은 35.4%인 반면, 어머니와는 11.9%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와의 소통 부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여성가족부, 2010:293-294)
- 한편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대해 아버지가 만족한다는 비율은 57.2%, 어머니는 71.2%로 아버지의 자녀관계 만족도 비율이 낮았음
- 결국 일하는 남성가장은 절대적으로 가족을 위한 시간 사용량이 적으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더 적고, 자녀와의 대화도 부족하며,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도 낮은 현실에 있음. 이러한 남성가장의 가족시간 부족 요인 중 하나는 바로 OECD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긴 노동시간일 것으로 추정됨
- 가족여가 제약요인으로 남성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17.3%), 가족공동

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15.3%), 일이 너무 바빠서(14.0%)의 순으로 ‘일이 바빠서’의 비율이 ‘가족공동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응답과 비율차이가 크지 않았음. 반면 여성은 가족공동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19.0%), 경제적 부담 때문에(16.3%), 일이 너무 바빠서(10.8%)로 ‘일이 바빠서’라는 응답비율이 남성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남 (여성가족부, 2010: 570-571). 또 ‘가족공동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점 또한 업무과중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의 결과일수 있어 장시간 노동문화가 가족여가를 제약하는 주요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 아버지의 가사참여와 자녀양육자 역할 미흡

- 자녀의 출산과정과 양육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임. 이에 경제적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가장의 역할이외에 가사와 자녀양육 등 가족내 양육자 역할 실천은 상대적으로 젊은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남성의 자녀양육자 역할에 대한 요구의 배경에는 맞벌이 가족의 증가가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지위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가족 내에서도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남성의 가사참여는 미미함
  - 통계청 「2008년 사회조사」 결과 15세 이상 인구 중 가사분담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2.4%로 10명 중 3명 이상으로 나타남. 반면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서 평소의 가사분담에 대하여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남편 7.5%, 부인 7.9%에 불과해 견해와 실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 함께 살고 있는 부부의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

(단위 : %)

	계1)	부인이 주 도	부인이 전적으로 책 임		공평하게 분 담	남편이 주 도	남편이 주로 하지만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 임
			부인이 전적으로 책 임	부인이 주로 하지만 남편도분담				
2006 <남 편>	100.0	89.5	31.9	57.6	7.5	2.9	2.4	0.6
<부 인>	100.0	89.7	36.5	53.2	7.9	2.3	1.9	0.4

주: 1)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서 '남편'과 '부인'만 응답

자료: 통계청(2008), 「사회조사」

- 가족내에서 남성의 아버지 역할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청소년이 고민을 상담하는 대상은 친구·동료가 49.9%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은 부모로 18.0%, 스스로 해결이 17.2%의 순임. 특히 부모 중 아버지는 2.9%에 불과함.
  - 연령별로 보면 15~18세의 경우 친구·동료 48.1%, 부모 23.4% 순임. 그러나 연령이 높은 19~24세는 친구·동료가 51.3%, 스스로 해결이 16.4%로 부모보다 높음
- 한국 기혼남성의 부성실천 유형을 조사한 결과, 한국남성들의 아버지 노릇은 생계부양자로서의 기본적인 부양과 자녀에 대한 칭찬과 애정적인 스킨십 정도가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아버지 역할이며, 자녀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아버지 노릇은 크게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김혜영외, 2009)
  - 이를 보면 한국의 기혼 남성들은 주요 과업으로 부양자역할을 우선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녀돌봄 책임감이나 참여는 부인에 의존하고 있어 자녀돌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자녀와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공유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됨(김혜영, 2010:25)

- 이러한 남성의 가족생활에 대한 낮은 참여는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사회가 여전히 일 중심적인 노동문화와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가족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함.

#### □ 은퇴후 노년기부부 갈등

- 남성의 가족생활에 대한 소극적인 참여와 자녀양육자 역할의 부족함은 중장년기에 이어서 은퇴이후에도 지속되어 은퇴남편증후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해 은퇴후에도 약 40년 가까이 부부가 함께 살게 되는데 중장년기부터 가사와 자녀양육을 함께 하지 않고 일만 해왔던 남성의 경우 가족으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은퇴증후군을 경험하게 된다고 함
- 이는 생애주기별로 남성과 여성의 가족생활차이에서 비롯됨. 특히 장시간 노동과 가족시간 보다는 일 중심으로 살아온 압축적 근대화 시기에 형성된 남성가장의 생활이 원인임. 즉 남성가장은 경제적 부양자로서만 역할을 강조받았을 뿐 가족내에서 자녀양육자 역할이나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맺기 등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옴. 또 가족이 속한 지역에서의 활동도 거의 하지 않고 생활해옴
  - 예비노년층인 베이비부머 조사 결과(정경희 외, 2010), 자주 접촉하는 지인으로 남성은 직장동료, 여성은 지역주민이었음. 이에 은퇴한 노년기 남성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지만 남성보다 가족들과의 관계맺기나, 지역사회 활동이 많았던 여성은 노년기가 되면 자녀의 성장과 출가로 시간이 많아지고 더 활발하게 지역사회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은퇴후 가족으로 귀환한 노년기 남성은 식사 등 일상생활을 부인에 의존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와 사회활동까지 생활 전반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접촉 등 독자적인 지역 내 관계를 유지해온 부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됨

□ 100세시대 노년기 부부관계의 친밀성 확보를 위해 일과 가족생활 균형 필요

- 한편 100세 시대 긍정적 노년기 부부관계는 중장년기의 부부관계의 연속이며 은퇴 후 갑작스럽게 부부관계의 친밀성이 확보되기는 어려움. 이에 100세 시대 길어진 노년기 부부관계의 친밀성의 기반은 신혼기부터 부부관계에서 시작되므로 부부상호간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일 중심적인 노동문화를 탈피하고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즉 100세 시대에는 짧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오래, 더 길게 일하는 것으로 노동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재보다는 가족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여 일과 가족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하여야 할 것임
- 최근 중장년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부부의 비율도 높음.
  - 실제 노년기를 앞둔 중장년기 부부의 경우 부부관계가 긍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사례가 다수 보고됨. 예를 들어 한경혜 외(2011)의 한국의 베이비부머 패널 조사 결과, 베이비부머 부부중 부부동반외출과 긍정적인 대화빈도로 부부간 상호작용의 질을 파악한 결과, 약 60-75%가 긍정적이었음
- 또 가족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2010)에 의하면 노후 생활에 있어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후에 어떻게 혹은 누구와 지내고 싶은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7%가 배우자와 단둘이 보내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남성은 79.0%, 여성은 66.6%로 남성이 더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에도 자녀 혹은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호도에 비해 배우자와 함께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 또한 동 조사에 의하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으로도 배우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다. 관련 정책 현황

- 100세시대 가족생활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그램은 주로 가족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음. 201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중 관련된 사업을 보면 가족친화 사회·직장환경 조성 사업과 공공민간부문의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사업, 좋은 부모 및 가족가치확산 관련 사업 등이 있으며 그 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다양한 가족지원사업도 이에 해당됨
-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장시간 근로가 여가부족을 초래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를 저해하여 가족갈등 등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데 있음
  - 잦은 야근 등으로 인한 가정사 피해사례 보고됨. 가족간 마찰 증가 64.9%, 수면으로 보내는 주말 52.7%, 가족대화시간 급감 50.5%임(‘08.4월, 커리어, 복수응답)
  - 영국의 레가툼연구소의 ‘2010년 레가툼 번영지수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10개국 가운데 한국은 종합순위 27위. 교육 8위, 국정운영 31위, 보건 30위, 치안과 안보 33위로 중위권이며, 개인의 자유는 64위로 하위권임(매일경제, 2010.10.28일자)
  - 육아, 가사로 부담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이 심화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환경 만연함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사업 : 가족친화기업 인증, 가족친화포털사이트 운영으로 가족친화제도 홍보와 가족친화기업 커뮤니티 구축하여 상호소통공간 제공, 가족친화컨설팅 및 교육훈련, 가족친화 문화조성 홍보 및 캠페인, 가족친화마을 조성,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아버지 아카데미 운영으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활성화
  - 공공·민간부문의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사업 : 공공과 민간부문의 유연근무 확산을 통해 가족시간을 확보하고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지원

- ‘좋은 부모 프로그램’ 실시 등 가족가치 확산교육 실시 사업: 일·가정생활 조화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 강화를 위한 아버지 교육, 가족친화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적극적인 부모교육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 사업 : 동 사업은 기본적으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으므로 100세 시대 대비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특히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사업, 가족캠프나 여가프로그램, 부부교육 및 남성대상 교육프로그램 등은 긍정적인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

### 3. 주요 정책 아젠더<sup>6)</sup>

#### 가. 100세 시대 개인생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 기대수명 연장은 통상 논의되어온 생애주기 가운데 노년기의 연장을 의미함. 따라서 노동시장의 은퇴시기가 재조정 되지 않는 한, 일 없이 혹은 일정한 소득활동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남녀 모두 30년 내외 기간의 삶을 영위해야 함.<sup>7)</sup> 이로 인한 새로운 의제의 부각 및 관련 정책이슈는 다음과 같음.

#### ① 노년기 신체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 강화를 통한 심리·정서적 지지망 구축에 대한 지원

- 노년기에도 다양한 신체, 사회적 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 개인적 노력과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요구됨<sup>8)</sup>

6) 가족생활재설계를 위한 정책아젠다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본 절에서는 가족정책의 틀 안에서 제안하고자 함. 본 절의 정책과제 중 일부는 김혜영(숙명여대 산업정책대학원 교수)의 자문의견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7) 2009년 평균기대여명이 남자의 경우 77세, 여자 83.8세임에 비해, 기업의 평균정년은 55세이나 조기정년 등으로 평균 은퇴연령이 53세로 예시되어 있음.

8) 노인인구의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WHO주도로 고령친화도시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WHO의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는 2005년 브라질에서 열린 국제노년학·노인

- 또한 노년기에는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유급노동보다는 제 3섹터에서의 자원 활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필요

[예시] 어르신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지킴이 활동, 즉 지역사회내 아동 및 여성안전지킴이, 환경파수군 등의 역할부여

- 신체·사회적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사회적 관계 강화를 통한 심리·정서적 지지가 필요함. 특히 남성의 경우 유급노동 중심의 인간관계에 치중함으로써 은퇴후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질적, 양적 감소를 경험하고, 여성들은 중년기 이후 자녀 및 가족요구에서 벗어나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짐. 이러한 성별 격차는 은퇴후 부부관계는 물론 지역사회내 자원활동의 여성화를 초래하게 됨. 따라서 중년기 이후에는 부부가 함께 일터는 물론 가족 및 지역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원활동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됨. 또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자원활동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가족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예시]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성화, 중년기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중년기남성의 가족적응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 ② 은퇴이후 장기화된 노년기 생활보장 방안 마련

- 과거에 비해 은퇴이후 더욱 길어진 노년기 생활보장을 위한 경제적 대비가 매우 중요해짐. 이에 노동시장에서 평균 은퇴연령의 재조정 논의가 요구되며, 노년기 인력 활용을 위한 제 2의 노동시장 창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는 노동시장 재편이 요구되는 과제로 범부처 추진사업과제임

---

의학회(IAGG XVIII World Congress)에서 최초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6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주요 참여희망 도시들이 모여 능동적이며 건강한 고령친화적 도시환경에 대해 논의함. 2007년에 WHO와 33개 참여도시(22개국) 주도로 고령친화도시의 이론적 틀과 지침이 개발됨(WHO, 2007). (김진, 2011 참조).



### ③ 정책설계시, 수명연장에 따른 생애주기 재분류·재개념화의 추진

- 현 수준에서 100세 시대의 의미는 대다수 개인들에게 있어 80세까지는 삶이 지속되며 90세에 이르러 죽음을 설계해야 하는 시기로 진입했음을 의미함으로 개인생애 구분을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음. 전반적으로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의 구분이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
- 이는 다양한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특히, 최근 고학력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노동시장 진입등의 연령을 고려하여 재조정되어야 함. 은퇴연령 재조정, 연금수령개시연령에 대한 논의 등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 그밖에 일상생활에서의 연령고정관념 탈피, 연령중립적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 결혼, 출산 등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경험하는 생애사건들이 과거와 달리 연령과 무관하게 일어남으로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조직되는 학부모회, 학부모 교육 등에서 연령중립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나. 100세시대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가족주기의 변화를 고려할 때, 가족생활 주기 6단계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자녀출가 후 노년기의 연장으로 부부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로 인한 새로운 의제 및 정책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① 가족생활 재설계 지원 프로그램

- 100세시대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기 부부기간이 길어짐. 하지만 일반인들은 대체로 90대까지의 생애설계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애재설계 및 가족생활 재설계 필요 및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또 만혼과 출산연기 등으로 가족주기 발달단계에 있어서 연령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연령고정관념이 없어짐. 이에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부

모상담 등 관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연령중립적이거나 다양한 연령별로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예시] 100세시대 노년기부부생활 준비와 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노년기 부부기간의 장기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장년기 또는 신혼기, 예비부부교육시 활용.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은 과거와 달리 부부가 함께 지내야 하는 노년기가 길어진다는 점, 초기 부부관계의 질과 만족도가 중장년기와 노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임

## ② 남성의 가족귀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노년기 장기화로 은퇴이후 가족생활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남성들이 갈 등없이 가족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과거 자녀 양육기에 아버지 역할과 더불어 은퇴남성대상 교육등 아버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함.

[예시] 요리교실이외에 자녀와의 소통대화기술, 부부간 대화기술 등 가족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일상음식 만들기, 가전제품 사용법 등 가사적응 훈련 및 노년기 부부관계 갈등예방 프로그램 등)

## ③ 남성은퇴자의 지역사회참여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 주로 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남성은퇴인력의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자원으로 은퇴인력을 활용, 노년기 은퇴남성의 생산적 노년을 지원하도록 함

## ④ 부부관계의 안정성 및 정서적 친밀감 유지를 위한 전략 필요

- ① 부부간 역할 공유를 위한 역할 재모형 수립
  - 2인 생계부양자 시대 적극적인 돌봄 공유 부부로의 역할 변화 및 남성들의 돌봄 가치 재발견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지역 및 사회 환경의 조성

[예시] 학부모 회의 및 학교행사에 적극적인 아버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성실천의

날' 선포, 학교의 '아버지 회' 조직 등

② 건강한 노인부부의 행동매뉴얼 제정 및 참여기회 확대

- 시니어 연합 등 관련 노인단체들의 공모를 통해 행복한 노인 부부 상(象) 및 부부수칙 제정, 노년기 부부상담 및 교육, 부부이벤트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안내책자를 노인 관련 단체에 비치 및 배부, 노년기 부부의 지역사회 참여활성화를 위한 실버세대 부부 봉사단 발족 등  
[예시] 현 각 지역사회내 활성화된 '가족봉사단' 활동과의 연계, 혹은 부부가 함께 하는 홈쿠킹, 반찬만들기, 뜨개교실 등의 취미 교육과 봉사활동을 연계

- 나아가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가족간 재능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 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가족관계 교육가운데 노년기 세대를 위한 교육을 보다 세분화함. 즉 전반적인 노년기 부부 교육이 아니라 노년기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교육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유도함

[예시] 은퇴직후 부부간 갈등예방 및 역할이해교육, 70대 노부부를 위한 의사소통 교육 등

③ 노년기 부부관계 관련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 등 관심증대 필요

- 전체 이혼건수는 2007년에 비해 만 건 가까이 줄어드는 등 최근 5년 동안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황혼이혼은 2004년 18.3%에서 2005년 18.6%, 2006년 19.1%로 최근 5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지금까지 부부갈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개입과 프로그램들은 신혼기 부부, 중년기 부부에게만 초점을 두어 왔으며, 노년기 부부와 부부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적 관심은 미미하였음
- 최근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그 양상이 다양하게 소개되면서 이를 다루기 위한 전문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활성화가 필요함

**⑤ 길어진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부모자녀관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부모역할 정립**

-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최근 신규노동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

움이 가중됨에 따라 점차 만혼화,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함. 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연장은 결과적으로 자녀세대에 대한 부모의 의존성을 더욱 확대되고 있음. 요컨대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자녀 수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사회의 경우 여전히 과잉경쟁의 문제를 교육수준의 고도화로 해결하려는 높은 교육열문화에 압도되어 있음. 이에 자녀교육에 대한 최적의 지출이 아닌 최대화 전략이 구사됨으로써 노년기 생애자금의 대부분을 선지출하는 현상이 발생함. 따라서 부모자녀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과제가 요망됨

- ① 중년기 부모의 자녀부양부담 축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및 실천운동 전개

[예시] 사교육비 절감대책 강구, 청년세대의 양극화된 소비문화에 대한 공약캠페인

- ② 대학등록금제도 개선을 통한 부모의 자녀부양비 완화방안
- ③ 건전한 결혼문화 전개운동

[예시] 건강한 혼수 및 혼인문화 정착을 위한 부모연대 활동지원, 건강한 결혼예식문화 정착을 위한 컨설팅 사업지원, 신혼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확대

- ④ 신가족주의 운동: 여성의 내자녀 중심, 자녀의 성공을 통한 내가족의 명예 및 위상제고에 역점을 두는 가족중심주의가 아니라, 경쟁지상주의와 생산성 제고를 독려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간의 진정한 유대와 친밀성을 복원시키는 핵심기제로서 가족의 위상을 재개념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족문화활동 및 이벤트 활성화 방안을 기획하도록 함.

[예시] 가족단위의 공공성 및 체험적 여가활동 지원,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등의 활성화

## ⑥ 지역사회내 가족역할 재정립 및 가족가치 확산

- 노년기의 장기화로 인해 은퇴 후 가족생활기간이 길어짐.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등 생애주요과업에서 벗어난 노년기에 무기력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노년기 부부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54 ●●● 100세 투자사회 대비 가족정책 과제 연구

- 또한 가족생활의 중요성이 커지는 100세 시대, 내 가족중심주의를 벗어나 지역사회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이웃공동체가 복원될 때 가족의 의미와 가치는 더욱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예시] 자녀돌봄품앗이 및 공동육아를 통한 이웃공동체 복원, 지역사회 어르신돌봄공동체 만들기

---

## IV

---

# 100세 시대 주요 가족정책 과제(2)

## : 노년기 가족돌봄 지원

---

1. 배경	57
2. 노년기 가족돌봄 현주소 및 관련정책 현황	61
3. 주요 정책 아젠더	66

## 1. 배경

- 현재 노년기 가족형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부부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이며, 가족지원망의 축소는 노년기 돌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2004년과 2008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자녀별거가구와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표 IV-1>), 이러한 변화는 가족지원망이 약하고 자원이 취약한 노인가구와 독거노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안전망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함.

〈표 IV-1〉 한국의 연도별 노인가구형태별 분포

(단위: %)

가구형태별		1998	2004	2008
노인독인가구(%)	소계	20.1	24.6	26.7
노인부부가구(%)	소계	21.6	26.6	39.7
자녀동거 노인가구(%)	소계	53.2	43.5	28.6
	노인+기혼자녀	39.0	29.1	15.7
	노인+기·미혼자녀	2.1	2.7	0.7
	노인+미혼자녀	12.1	11.7	12.2
기타노인가구(%)	소계	5.1	5.4	5.0
	노인+부모	0.8	0.9	2.3
	노인+손자녀	3.6	3.7	2.4
	노인+친척	0.4	0.5	0.2
	노인+비혈연	0.3	0.3	0.1
합계(%)	소계	100	100	100
가구수(가구)	소계	1958	2456	10715

출처: 정경희 외(1998, 2004), 박명화 외(2009),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동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후 돌봄의 주 제공자로서 배우자의 비중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표 IV-2>), 이는 노인의 주돌봄자 중 배우자의 비중이 37%로 나타난 장혜경과 동료들(2006)의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결과와도 유사함.

〈표 IV-2〉 노인 돌봄의 제공자(65세 이상)

(단위: 명, %)

	2004		2008	
	주돌봄자	부돌봄자	주돌봄자	부돌봄자
없음	-	57.4		
배우자	36.1	1.9	46.9	11.0
장남·며느리	28.6	11.0	20.6	21.9
그외 아들·며느리	12.0	10.8	9.4	13.6
장녀·사위	6.3	4.8	4.2	14.4
그외 딸·사위	8.0	7.7	5.2	14.0
손자녀·배우자	2.4	4.1	1.3	7.4
부모	-	0.1		
형제자매	0.7	0.4	0.2	0.0
그 외의 친척	1.1	0.1	0.3	0.3
친구·이웃사람	1.6	0.6	0.5	4.0
가정봉사원·간병인	2.6	0.9	8.8	8.1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0.2	-		
119응급구조대	0.2	-		
기타	0.2	0.3	2.6	5.3
계(명)	822	822	903	464

주: \* 2004년 본인응답자 3,029명 중 돌봄을 제공받은 822명 대상임.

\*\* 2008년 주돌봄자는 본인응답자 1,028명 중 간병수발자가 있다고 응답한 1,023명 중 무응답자 3명과 60세 이상 65세 미만을 제외한 903명 대상임, 부돌봄자는 65세 이상 중 부간병수발자가 있다고 응답한 464명 대상임.

출처: 정경희 외(1998, 2004), 박명화 외(2009),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특히, 2008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는 남성노인일 경우 주돌봄자가 부인이라는 응답이 83.7%, 여성노인일 경우 주돌봄자가 남편이라는 응답이 26.2%로 조사되었으며, 연령대가 초기 노인일 경우 배우자가 주돌봄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표 IV-3>).

〈표 IV-3〉 노인과 주돌봄자의 관계 및 특성

(단위: 명, %)

	성별		연령					
	남	여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배우자	83.7	26.2	78.0	74.3	69.9	41.8	36.5	11.7
장남, 며느리	4.0	29.1	2.3	8.4	7.7	19.0	26.0	42.6
장남외 아들, 며느리	3.7	12.5	3.6	5.8	4.8	11.8	10.5	14.5
장녀, 사위	0.9	5.9	1.1	2.8	1.1	1.5	8.0	7.7
장녀외 딸, 사위	2.1	8.3	9.8	2.0	5.4	7.0	4.5	6.5
손자녀, 배우자	0.3	1.7	0.0	0.0	0.0	1.4	2.6	2.4
형제, 자매	0.0	0.9	2.6	0.0	0.3	0.0	0.0	0.8
기타 친인척	0.0	0.4	0.0	0.4	0.5	0.0	0.0	0.6
친구 및 이웃	0.0	0.8	0.0	0.6	0.1	0.3	0.0	1.6
유급간병수발자 (가정봉사원, 간병인)	4.2	11.0	2.6	5.0	7.8	13.1	9.5	8.5
기타	1.1	3.2	0.0	0.8	2.3	4.1	2.5	3.0
계(명)	430	590	117	164	197	185	180	177

주: \* 간병수발자가 있다고 응답한 1,023명 중 무응답자 3명을 분석에서 제외함  
출처: 박명화 외(200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이와 함께, 노후 돌봄에 대한 가치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2007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 중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나타났음.
  - 2008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응답자의 71%가 노후 자녀와의 동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노후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조부모가 그들의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손가구는 전체 가구의 0.36%(58,101가구)로 나타났으나 이는 1995년 수치(35,194가구)와 비교할 때 약 65% 증가한 것이며, 가족다양성의 증가로 조손가구의 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손가족의 조부모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손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66.2%가 손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이 양육(교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라고 응답하였고, 11.5%가 ‘아이의 생활 및 학습지도 문제’, 10%가 ‘아이의 장래를 준비해 주는 문제’라고 응답하였음. 이는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인구사회학적 구조의 변화, 노후 돌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100세 시대 대비 가족을 돌보는 노인 및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노년기 가족과 관련된 정책이슈는 소득/고용, 건강, 주거, 여가 등 다양한 영역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함.

## 2. 노년기 가족돌봄 현주소 및 관련정책 현황

### 가. 노년기 가족돌봄의 현주소 및 주요 이슈

-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이 증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돌봄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부족함.
  - 노인이 가족(배우자 돌봄, 손자녀 돌봄 등)을 돌보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노인이 돌봄의 대상이었으며, 이에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
  - 한편, 스스로 노인(老)이면서 가족 중 요보호 노인(老)을 돌보는 경우 이를 ‘老老케어’로 명명하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노노케어’라는 용어는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면서부터 ‘건강한 노인이 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돌보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해외 사례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됨. 이에 용어 정리도 필요함.
- 노인이 가족돌봄의 주돌봄자가 될 경우 돌봄자 자신의 고령화로 인한 신체·기능상 제한 등으로 인해 부양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 노년기 가족돌봄자가 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부양부담은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이 있음.
  - 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2002년 노인복지 기초수요 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자료(n=1,000)를 분석한 김혜경(200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 스트레스 요인(예: 노인의 증상, 노인 케어 기간, 부양자의 건강상태)이 중요한 부양부담 관련 변수로 나타났음.
  -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의 경우, 특히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더욱 노인의 돌봄자원(예: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등)에 따라 부양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음.
  - 따라서, 가족을 돌보는 노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한편, 남성노인이 배우자를 수발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 노인에 의한 배우자 돌봄의 경우 여성노인이 주돌봄자인 경우가 많으나 남성노인이 부인을 돌보는 경우도 적지 않음. 따라서, 남성노인의 돌봄 상황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도 필요함(김혜경, 2007).
- 노인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도 확대되어야 함.
  - 배우자 또는 성인자녀 없이 혼자 생활을 영위하는 노인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많은 수의 독거노인이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고, 빈곤, 소외, 우울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밝힌 기존 연구결과들(석재은, 2007; 최영, 2008)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지원제도를 구축해야 함.

## 나. 국내 관련 정책 현황

### □ 가족돌봄자 및 노인 1인 가구 지원정책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돌봄자 및 노인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주요 정책 및 제도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서비스 - 기본, 종합’, ‘노노케어’ 등이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인정 1~3등급을 받을 경우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는 제도임.

〈표 Ⅳ-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사업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지원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인정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급여내용:
  - ①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②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③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pp.211-212.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및 건강상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표 Ⅳ-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개요

- 지원대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
  - ※ 제외대상: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①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② 건강상태 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요양서비스 필요)을 받은 만65세 이상 노인
  - ※ 대상자 선정 시 건강상태, 소득수준, 동거가족 유무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등급 외 A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차상위(2순위)
	차상위 초과(3순위)
등급 외 B	기초생활수급자(4순위)
	차상위(5순위)
	차상위 초과(6순위)

▪ 지원내용:

- ① 신변·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② 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③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출처: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pp. 104-123.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정방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표 IV-6〉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개요

<p>▪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li> <li>-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 관련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li> <li>-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li> </ul> </div> <p>※ 제외대상: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p> <p>▪ 선정기준: 독거노인 현황조사 실시</p> <p>1차 판정: 반드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우선대상자 선별. 지역내 전체 독거노인을 주택위치, 결식횟수, 도움필요 일상동작수, 사회관계에 따라 판정</p>
--

2차 판정: 정기적 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라 판정

▪ 지원내용:

- ① 안전확인 서비스: 건강 및 주거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접 방문 및 간접 안전확인
- ② 생활교육: 운동과 건강에 관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생활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제공
- ③ 서비스 연계: 독거노인 욕구를 파악하여 개인별 서비스계획 수립 후 서비스 제공여부 및 방식 결정 후 노인돌봄미에게 통보, 기관과 가구 연계 후 사후점검

출처: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pp. 30, 37, 38.

- 노노케어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구형태 또는 소득수준에 의해 지원대상이 될 경우 생활가사지원, 심리건강서비스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임.

〈표 Ⅳ-7〉 노노케어(노인일자리사업 중 복지형: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 서비스이용대상

- ① 독거노인 돌봄지원 사업 : 지역내 독거노인 대상
- ②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 사업 : 부양가족의 경제활동으로 주간에 돌봄 사람이 없는 저소득 노인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판단하는 요보호 대상자 등

▪ 서비스이용자 지원내용

- ① 개인활동지원: 목욕, 용변 수발, 외출동행 등
- ② 가사지원: 식사도움, 생필품구매, 밀반찬 등
- ③ 행정업무지원: 행정관청 업무대행 등
- ④ 정서지원: 말벗, 책 읽어주기 등
- ⑤ 건강지원: 혈압·혈당체크, 투약관리 등
- ⑥ 단순안전확인: 안부전화 및 방문확인 등
- ⑦ 기타: 상담, 결연 등

출처: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pp.24, 25, 34, 36.

보건복지부(2011), 「2011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pp.499, 593, 609.

□ 현 지원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 전술한 가족돌봄자 지원정책은 가족돌봄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의 돌봄욕구를 어느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지원대상을 엄격한 기준(예: 소득수준, 노인의 기능상태 등)에 의해 선정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이에, 증가하는 노인돌봄자와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확대할 필요가 있음.

### 3. 주요 정책 아젠더

#### 가. 기초 R&D 확대 필요

□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현황 파악 위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

-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 실시가 필요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우자,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주요 어려움, 정책지원 욕구 등을 파악하여 이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와 함께, 실태조사에 돌봄의 가치에 대한 변수를 포함시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노인, 가족을 대상으로 전국적 규모의 조사(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등)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된 자료가 아님.
  -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마다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이 조사는 노인의 가족관계 및 가구형태, 노인의 소득 및 직업실태, 건강상태 및 사회활동, 노인부양실태 등 노인생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은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국 가족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족형성, 가족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및 가정생활, 돌봄, 가족의식 및 가치관 등)를 생산하고, 가족의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가족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이 조사에도 노인돌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전국 일반가구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생활 실태 및 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이 조사에는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돌봄에 관한 문항이 일부 존재하나 조사 대상이 64세 이하 여성 가구원이 있는 가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노인에 의한 가족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활용되기에는 제한이 있음.
-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가족 내 돌봄 노동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이들 연구는 아동, 장애아동, 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가구의 가족 내 돌봄 실태 및 돌봄자의 돌봄 시간을 파악하여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서울·경기지역 중심의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일회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함.
- 이와 같이 기존 조사 자료를 이용하기에는 다양한 한계가 존재하는 바, 노인 가족돌봄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인에 의한 가족돌봄’ 관련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함. 구체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돌보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돌봄 관련 주요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나.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제도 기반 확대

- 비공식 가족돌봄자(informal family caregiver)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미국의 경우 「Older Americans Act」에 National Family Caregiver Support Program(NFCSP)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NFCSP를 통해 가족돌봄자에게 1) 정보제공, 2) 서비스연계, 3) 개인상담, 자조집단 운영, 부양자 훈

런 프로그램, 4) 휴식서비스, 5) 보충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1995년 「Carers(Recognition and Services) Act」를 제정하여 비공식적 돌봄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였고, 2000년 「Carers and Disabled Children Act」를 제정하여 돌봄자의 권리를 강화하였고, 2004년 「Carers(Equal Opportunities) Act」가 제정되어 돌봄자들의 권리와 지위가 강화되었음(장혜경 외, 2006). 또한 ‘돌봄자를 위한 뉴딜’(New Deal for Carers) 정책(2007)은 돌봄자들이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대인서비스, 주간돌봄서비스, 휴식서비스, 원격돌봄과 원격건강서비스, 보장구대여 서비스, 돌봄자를 위한 ‘돌봄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휴식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을 명시하고 있음(강욱모, 2009).
-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가족돌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돌봄제공자 양성 및 지원제도 도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세부과제로 ‘돌봄제공자 지원에 관한 법(가칭)’ 제정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다. 가족돌봄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

### □ 필요성

- 기존연구에 의하면 가족돌봄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활용이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부양부담의 경감이 노인의 시설입소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돌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지원서비스는 1) 경제적 지원(예: 돌봄수당, 노인 의료비용 지원, 간병인 비용 지원 등), 2) 재가서비스 지원(예: 전문 간병인 파견 서비스,

방문 간호서비스 등), 3) 시설서비스 지원(실버노인 요양시설 등), 4)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예: 일시 휴식 또는 휴가를 위한 비용지원 또는 간병인 파견 등) 등으로 조사되었음(장혜경 외, 2006).

#### □ 가족을 돌보는 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 노인 수발자 휴식지원서비스(respite care service) 제도화
  - 휴식제도는 가족수발자의 휴식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으로, 적절한 일시휴식제도는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돌봄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돌봄자를 위한 휴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이며 서비스 내용이 단편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휴식서비스 내용을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구체적으로, 요보호 대상 가족원(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을 돌보고 있는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노인의 상태, 가구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변활동 지원서비스 또는 가사·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 파견 사업(가칭) 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노인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 기존 가족돌봄자 지원 정책은 주로 부모를 돌보는 성인자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노인이 배우자를 돌보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개발이 필요함. 특히, 남성노인이 배우자를 돌보는 수도 적지 않으므로 성인지적 시각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재가 요보호노인 가족케어자의 부양부담을 연구한 김혜경(2007)의 연구에서도 남성 노노 케어자의 서비스 욕구를 채워주어 가족케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따라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돌봄기술(예: 가사일하기, 간병하기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 있음.

## □ 지역사회 노인돌봄 프로그램 개발

### ○ 지역사회 노인돌봄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인의 aging-in-place를 돕고, 가족돌봄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비영리 민간조직인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노인돌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노케어’와 유사한 자원봉사사회를 구성하여 몸이 불편한 노인의 외출지원, 간호예방 지원, 몸돌보기, 출장방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윤순덕, 박공주, 채혜선, 2009).
- 특히, 효고현 코베시 노인클럽 연합회는 노인클럽회원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발을 제공하는 노인상호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간단한 식사보조, 신변처리 도움, 청소, 장보기 등의 서비스를 1회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시간까지, 월 10회 한도 내에서 제공하고 있음(윤순덕, 박공주, 채혜선, 2009).
- 신체·기능적 또는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예: 가사활동 지원, 활동보조, 말벗서비스 등)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할 경우 ①노인의 가구형태(예: 노인부부가구, 노인 1인 가구 등)에 관계없이 노인의 돌봄 욕구를 일정수준 채워줄 수 있고, 동시에 ② 노인의 가족 및 돌봄자의 부양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임.

## □ 노년기 “자가관리/자기부양(self-care)” 개념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노년기에 다른 가족을 돌보면서 자신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자가관리/자기부양(self-care)”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 노인세대 및 곧 노인이 되는 베이비붐 세대 모두 노후 돌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수연, 최

인회, 김인순, 2010). 또한, 상당수의 비노인세대 역시 노후돌봄의 책임은 가족, 사회, 국가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년기에도 자신을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 self-care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self-care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건 영역에서 질병관리 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에서 시행된 만성질환자기관리 프로그램(The chronic disease self-care management program)의 경우 교육(질병 전반에 대한 이해와 기술습득을 위한 집단교육 등으로 구성) 실시 이후 노인들이 증상관리를 더 잘하고, 장애가 감소되고, 입원율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송미순, 2004).
- 미국에서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주돌봄자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self-care방법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하고 있음. 특히, 만성질환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발된 Powerful Tools for Caregivers는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이 가족돌봄자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표 Ⅳ-8〉 미국의 가족돌봄자를 위한 self-care 교육 프로그램:  
Powerful Tools for Caregivers

- 서비스이용대상: 가족돌봄자
- 교육기간: 6주(무료)
- 교육내용
  - ① 자기관리 방법(예: 운동, 건강검진 등)
  - ② 감정관리(예: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 죄책감, 우울증 등)
  - ③ 자기효용감(self-efficacy) 증진방법
  - ④ 지역사회 자원 이용방법

자료: Powerful Tools for Caregivers 홈페이지(2011).

□ 중장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충

-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돌봄 이전 부부관계의 친밀성의 정도와 유형이 노년기 배우자 돌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장년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충도 필요함.
- 선행연구에 의하면 배우자 돌봄은 부부의 애정이나 부부관계의 역사와 같은 관계적 자원이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관계적 자원에 따라 노년기 배우자 돌봄이 오히려 가장 고립적이고 문제적인 돌봄형태가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음(이순미, 김혜경, 2009). 그러므로, 노인이 가족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기 이전 배우자 및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한경혜, 손정연, 2009). 따라서, 중장년기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건강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강욱모(2009). “영국의 비공식 노인돌봄자 지원정책 분석 및 한국에의 함의”, 노인 복지연구, 45, 293-316.
- 김수정(2007). “‘탈가족화’와 돌봄 네트워크의 재구성”, 『네트워크의 사회의 구조와 쟁점: 관계와 상징의 연결망(III)』.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유경·김양희·임성은(2009).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2011). “해외도시의 고령친화도시 프로젝트 추진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삶의 질전략단, 고령친화도시기반조성 포럼 발표문.
- 김혜경(2007). “제가 요보호노인 가족케어자의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노노(老老) 케어자와 일반케어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7, 49-66.
- 김혜영(2008).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47(2), 7-37.
- 김혜영(2010). “한국 남성의 부성경험과 아버지 역할: 세대간 변화와 실천유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및 아버지 역할 지원 방안 대토론회」 발표문.
- 김혜영·선보영 외(2009). 「남성의 부성경험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경향신문(2010.9.5). “공공기관 여성고용, 기업보다 인색”
- 관계부처 합동(2010). “국가고용전략회의자료(내부자료)”
- 나석권(2010). 100세 시대 긴 호흡으로 준비한다. 인생 100세 시대 프로젝트.
- 대검찰청(2010). 「범죄분석통계, 2006, 2007, 2008, 2009, 2010」
- 마이클 샌델(2010).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역, 김영사.
- 박명화 외(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 석재은(2007). “독거노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복지동향, 102, 37-40.
- 송미순(2004). “건강증진개념을 적용한 만성질환 노인 자기관리 교육 모형 개발”, 노인간호학회지, 6(2), 228-242.

- 신중섭(2010). “공정한 사회에 대한 분석과 성찰”, 자유기업원 CFE Report
- 여성가족부(2009). 「퍼플잡 창출·확산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방향연구」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0.11.08). “UNDP, 우리나라 성불평등지수(GII) 20위”
- 유영주·김순옥·김경신(2000).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유영주 외(2004). 「새로운 가족학」. 서울, 신정.
- 윤순덕·박공주·채혜선(2009). “일본 민간조직의 지역노인돌봄 프로그램”, 농촌지도와 개발, 16(2), 337~362.
- 이수연·최인희·김인순(2010). 「남녀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순미·김혜경(2009). “남성노인의 배우자 돌봄에 대한 연구: 부부가구 노인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4), 63-94.
- 장경섭(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작과비평사.
- 장경섭(2011). “가족주의 한국인들의 개인화: 21세기의 개인, 가족, 사회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책현안 2차 포럼 발표자료.
- 장혜경·김은지(2011). “100세 시대 가족의 모습”, 제 69차 여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혜경·김혜영·강홍렬·김영란·최민영(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홍승아·김영란·김수정(2005).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장혜경·홍승아·이상원·김영란·강은화·김고은(2006). 「가족 내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전홍택·박명호·윤석명·송양민·정형선·방하남·한주형(2011).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경희(2011). “노년기 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1, 5.
- 정경희 외(1998).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정경희 외(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영애(2010). 세계경제포럼과 국가성평등지표.



- 조경옥·이동기·이중섭(2011). “100세 시대 도래, 노인 삶의 질 준비 필요하다”, 이 슈브리핑, 2011년 4월, 전북발전연구원.
- 최영(2008). ”독거노인의 경제수준,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2), 103-123.
-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11). 「2011 고령자 통계」
- 통계청(2011).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
-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가구,주택부분)」
- 통계청(2011).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 년도.
- 통계청(2011). 「2010년 출생통계」
- 한경혜(2011). “100세 시대 가족, 관계지형의 변화”, 제69차 여성정책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제99호.
- 한국선진화싱크탱크(2010). “특집:공정사회란 무엇인가”, 「시대정신」, 49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9).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조성방안 연구(I)」
- 현오석(2010).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경제·사회정책의 기본방향”, 「공정한 사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자료집

#### ■ 해외문헌

- Beck-Gernsheim, E.(2002) 「Reinventing the family: in search of new lifestyles」 Cambridge: Polity Press.
- Spillman, B.C., & Long, S.K.(2009). Does high caregiver stress predict nursing home entry? Inquiry, 46, 140-161.
- <http://www.womennews.co.kr>(2010.2.19)

## Abstract

# A Study on the Family Policy Tasks in Preparation for the Centenarian Society

Hye-Kyung Chang  
Young-Ran Kim  
In-Hee Choi

This study looks at women and family issues—the role of family and how to support seniors—that have risen under the “Policy direction for redefining the family role in the era of centenarians” set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is study closely examined these issues and proposes two top priority policy tasks as the following: “Redefining the family life and the role of family in society” and “Developing family support programs for seniors.”

For this end, this study has taken a look at how the family environment has changed in the centenarian era and the related family issues based 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olicies. This study proposes the background of the main policies, the related policy status, and policy agenda.

The centenarian era has changed the length of lifecycle surrounding

social participation and family life, and it will greatly increase the importance of family. Therefore, the family issues highlighted in this study and related policy tasks will be meaningful, serving as a basic material for social and policy preparations for the centenarian age.

There are three family issues identified in this study. First, related to the redefinition of the lifecycle and family lifecycle, an understanding of life after retirement and how to prepare for it early, and the redefinition of seniorhood. Second, family issues related to seniors and family: male seniors and how they can adjust to family life, senior married couples' relationship, the value of caregiver labor in the centenarian age and the need to examine family related laws, and the need to examine problems that might arise from senior caregiving. Third, family issues related to the changing senior groups: gender, marriage, social class, and other diverse senior classes.

In the "Redefining the family life and the role of family in society" task, this study looks into the detailed policy agenda following the changes to personal life and family life in the centenarian age. The main ideas are designing support programs to redefine family life, developing programs for men returning to families, developing and operating programs t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of retired male seniors, preparing individual and social strategies to stabilize marriage relationships and maintain psychological closeness, securing economic stability of elongated seniorhood, redefining the parent role to secure a healthy parent and child relationship, and redefining family role within society and expansion of family value.

In the "Developing family support programs for seniors" task,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conduct an investigation on the life-worlds of older adults who are taking care of their family members. Next, this study

addresses the need to build an institutional basis that can support informal family caregivers. Lastly, developing policies for seniors who take care of families is also important.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spite care service, development of support policy for seniors who take care of their spouses, and grandchild(ren) development of community-based senior care programs,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programs to emphasize the concept of “self-care” and expansion of programs to promote marriage relationship during middle-age and seniorhood are important.

2011 연구보고서(수시과제)- 9

## **100세 투자사회 대비 가족정책 과제 연구**

---

2011년 12월 7일 인쇄

2011년 12월 9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

ISBN 978-89-8491-469-8 93330

<정가 9,000원>